



새해에 장학빌딩 솟았다



지상 19층·지하 6층 규모
동문 정성 모아 2월 준공

관악출추

지난해 11월 16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출장 중, 모교의 朴明珍부총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법인화법안 국회 처리가 고비를 맞았다. 바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법안이 물 건너간다”며 안타까워했다.

吳然天총장 이하 모교 리더들의 노심초사를 멀리 타국에서까지 느낄 수 있었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통해 ‘자기책임 아래, 독립적 자율적 창의적으로’ 발전해 세계 초일류 대학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는 언론인들은 서울대법인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되는 것은 모교의 명예에 그치지 않는다. 초일류 대학은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초일류 대학은 국가

2011 서울대 응비의 동반자들

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 소수의 인재가 세계 문명과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행히 12월 8일 서울대법인화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모교와 동창회 및 동문들의 노력, 그리고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양식 있는 이들의 성원이 열매를 맺었다. 이제 ‘뉴 서울대 시대’를 펼쳐나갈 시간이다. 모든 서울대인들이 각자의 작은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서울대 응비의 동반자가 돼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서울대 밖에서도 국가사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 서울대의 성공을 응원해주었으면 한다.

지난해에는 개교 원년 찾기를 성사함으로써 모교가 올해 개학 1백16주년의 해를 열게 됐다.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묻혀있던 학교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동창회의 노력이 큰 힘이 됐으며, 특히 林光洙총동창회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동창회 말석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치고 싶었던 때가 많았다.

모교가 개학 1백17주년의 해인 내년에 법인을 정식 출범하는 만큼, 이에 앞서 2011년 한 해 동안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주기를 소망한다. (裴仁俊논설위원)

지난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뜬 장학빌딩은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동창회 건물이다.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6천5백여 명의 동문들이 보내준 정성으로 지어진 장학빌딩은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느리나무광장

사람들은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아 꿈과 희망을 얘기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 기술 발전에 의해 평화롭고 행복한 인류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첫 10년을 지나는 지금 그 같은 희망과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가 과연 장밋빛일까라는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지구촌 곳곳은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졌다. 민족·종교 갈등은 증오와 폭력에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헌팅턴이 경고했던 문명충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폭력사태와 전쟁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낙관적 자유주의는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코 발전과 번영의 복음이 아님을 잘 보여줬다. 인류는 지금 빈부격차, 온난화 등 지구 환경문제, 고령화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10년에 걸친 남북화해와 공존 실험이 좌초하면서 남북관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후퇴의 길을 걷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저출산·노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저마다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게 없다. 사회집단간에는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이기주의와 정서를 앞세워 증오와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세계 대부

분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리더십은 문제의 해결 주체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이다.

‘계놈’, ‘붉은 여왕’ 등 과학저술로 유명한 매트 리들리는 최근에 내놓은 저서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앞으로 1백년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류가 직면한 경제시스템 붕괴, 인구폭발, 기후변화, 테러리즘, 빈곤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낙관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욕구충족을 위해 달려온 인류 앞에 이제 가치와 목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야 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법 통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을 독점하시피 하는 서울대가 이들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개인적인 바람은 서울대가 기존의 가치체계 내에서 세계의 주요 대학들과 경쟁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과 리더십의 산실이 나의 모교 서울대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통찰과 리더십의 산실

李 啓 聖
한국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새해 새날은

吳 世 榮(국문61 - 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시인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눈송이를 털고
침묵으로 일어나 햇빛 앞에 선 나무,
나무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긴 동면의 부리를 털고
그 완전한 정지 속에서 날개를 펴는 새
새들은 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해 새날이 오는 길목에서
아득히 들리는 함성
그것은 빛과 빛이 부딪혀 내는 소리,
고요가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소리,
가슴에 얼음장 깨지는 소리.

새해 새날은
산으로부터 온다.

얼어붙은 제곡에
실날같은 물이 흐르고
숲은 일제히 빛을 향해
나뭇잎을 곧추세운다.

동문칼럼

2010, 2011... 건조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양식으로 庚寅,辛卯하듯이, 숫자들도 엄연히 한 해 한 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남다른 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지요. 우리는 보통 0이나 5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끝나는 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떠들썩하더니 벌써 11년이나 지났군, 심드렁하기는 해도 정신이 바쩍 든다고 여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역사연구자 한 분이 2011이라는 연도를 두고 곰곰 생각하더니, 이 해는 9·11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요, 소련이 해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요 하고 줄줄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무슨 대전환이 일어날까 하고 말이지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된 지 한참 이견만, 일상적인 삶은 우울하다거니와 득한 절망

감마저 든다느니,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말론적 분위기를 풍기는 발언들도 심심찮게 등장하지요. 백두산 화산이 언제 폭발한 대더라, 외국의 한 초능력 소년이 2013년 대란설을 말했다더라, 등등.

숫자로 표시되는 연도의 변화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집단적 불안감이 불러일으킨 소동의 하나로 서양 중세사에서 유명한 ‘서기 천년의 공포’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중세 유럽 사람들은 기원 1천년이 시작되는 순간 세계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999

년 말부터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또 참회도 하며 종말의 날을 기다렸지요. 1천년이 시작됐는데도 세상이 말쑥한 것을 보자 오히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요. 무엇이 잘못됐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역법 체계의 차이로 서기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지역마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 지방에서 사람들이 한동안 석고대죄하고 통곡하며 나날을 보낸 뒤 잠잠해지고 나면 다른 지방에서 큰 두려움 속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지방에서 히스테릭한 소동이 시작됐지요. 하여, ‘천년의 공포’는 마치 너울거리는 큰 물결과도 같이 일었다 가라



韓 貞 淑
(역사교육75 - 79)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
여성연구소장

않았다 하며 여러 지방을 차례로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 블로크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당시 사람들이 인류의 노쇠현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현상이 사실은 ‘청년기의 격정’ 같은 것이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에, 무어라고요? 2011년의 사람들이 자기네를 놀린다고 서기 천년의 사람들이 화낸다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로는 ‘서기 천년의 공포’보다는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말하는 ‘원형으로의 회귀’가 아무래도 좀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없이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에 의도적으로 단절을 가하고, 우주창조의 그 시

역사의 시간, 신화의 시간

간으로 되돌아가는 정신적, 영적 체험을 하는 것 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닐 테고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난마같이 꼬이고 얽힌 일들이 있다면, 차라리 시간의 흐름을 잠깐 멈추게 하고 신화적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남북문제건, 경제문제건, 정치문제건 혹은 개개인의 문제건 말입니다. 그것이 뜻대로만 잘 된다면야 2011년은 특별히 개성적인 한 해의 이름이 되겠지요.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신년사

변화와 혁신의 새해를 꿈꾸며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존경하는 서울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

밝아온 辛卯年 새해에는 모교 33만 동문의 가정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鵬程萬里’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꿈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깨 노력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는 거리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동창회가 동창회관인 장학빌딩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모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

이 되고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건립하고 있는 장학빌딩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지상 19층, 지하 6층 규모의 현대식 동창회관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동창회 재산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며 장학빌딩을 통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어 모교와 동문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장학빌딩 건립이 그동안 모래알 같다는 동문 사회가 뭉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을 보내준 수많은 동문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여 전부터 총동창회가 추진해온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도 지난해 10월 모교의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1895년을 개학 연도로 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모교 총장께서 10월 14일 개교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함으로써 모교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전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학 1백 16주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에 맞게 앞으로의 1백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적극적 자세로 변혁 주도해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동량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가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 동문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로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토끼를 이상향에 사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성장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토끼처럼 지혜로움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배려’와 ‘헌신’이 자기혁신의 요건

서울대학교 吳然天총장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신 동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밝고 활기찬 미래로 전진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세계의 개도국에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 잠재력이 대학의 지적 수준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한다면, 평화와 풍요를 바라는 국민들에



서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지만, 한국사회와 지구촌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없다면 ‘학문적 가치창조’의 근본주의적 기초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배려와 헌신’이 바로 자기혁신의 핵심요건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自律과 責任’을 핵심정신으로 하는 ‘국립서울

대학교 법인설립’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생선발과 교수채용에서 재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국가주도형 패러다임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만큼 성장시켰던 동력이었습니다만, 세계의 고등교육체제는 이미 관리에서 자율로, 감독에서 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모색과 결정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적 진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법인설립’은 우리에게 독립적 책임과 개척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서울대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만전을 기할터

우리는 이 새로운 길로 전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했던 우리의 지적 자산과 자성적 지혜와 국민적 기대를 한 가득 싣고 새로운 항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대의 항해는 국가라는 든든한 선박에 때로는 무임승차하며 힘있는 보호자의 지원으로 비교적 순항한 셈입니다.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이제부터 독자적으로 항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신패러다임이 출범하는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국립서울대학교 법인설립’을 둘러싼 쟁점들과 우려들을 원대하고 슬기로운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서울대는 국립대의 장점을 여전히 살려나갈 것이고, 기초학문과 인본주의적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도 지역균등과 기회균등의 문호를 넓혀 한국사회의 불평등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상해온 국제캠퍼스에 지방국립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해 국립대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지방국립대와 공동 개발해 한국이 명실공히 아시아 고등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희망의 한가운데 선 서울대

이제 서울대가 우리 국민의, 나아가 세계인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국민적 기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서울대인에게서는 든든한 버팀목이고, 그에 걸맞은 응답은 새로운 기대를 창출하는 혼연일체의 코러스입니다. 저는 이 웅장한 코러스의 전제가 바로 자신부터 깨닫고 자신부터 고치는 ‘자기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교육과 연구의 전통적 패러다임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 일궈낸 ‘과거의 성공’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곧 ‘성공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원리가 지난 세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환기한다면, 새로운 세기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할 신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물리학적 기계론의 패러다임도 훌륭하지만 생물학적 지각론의 패러다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은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원리를 접목하는 ‘개방과 융합’을 추구해왔다면, 자기혁신이야말로 ‘개방과 융합’의 유동적 과정을 상상력과 창의성의 영역과 결합시키는 소통의 에너지입니다.

남이 우려려 본다고 성공한 집단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자기혁신은 서울대인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식인에게 주어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지, ‘어둠의 파수꾼’이라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지적권위로 구축한 성취에 안주하면서 정의의 기치를 내건 사회개혁을 원하는 시정의 목소리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학생들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애환의 본질과 시대적 소명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 집착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서울대의 교육은 인격을 갖춘 교양시민이자 각 방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 ‘卯’는 음력으로 2월, 시간으로는 오전 5~7시를 가리킨다. 음력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묘시는 농부들이 논밭으로 나가는 시간이라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

우리 조상들은 토끼가 주는 순결함과 평화로움 때문에 일찍이 토끼를 이상향(달)에 사는 동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민간설화에서 토끼는 호랑이를 꿀탕먹이는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하다. 토끼는 자신이 닦아 놓은 길만 다니는 습성으로 한가지 일에 빠지면 한눈 팔지 않는 끈음까지 돋보인다.

辛卯年를 맞아 모든 동문들이 토끼의 영특함을 닮아 모든 일을 순탄하게 풀어가기를 바란다.



신년축화

南溪李奎鮮作

〈작가약력〉

- ▲67~61년 모교 회화와 졸업
- ▲대한민국 미술전 국무총리상·문공부장관상·추천작가상
- ▲대한민국 미술전 심사위원·운영위원
- ▲국내 개인전 11회
-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상파울로비엔날레, 인도프리에날레
- ▲해외 단체전 30여회
- ▲이화여대 교수 및 미대 학장 역임
-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辛卯年 元旦’, 40×32cm, 화선지 수묵담채, 2010

장학빌딩 건립기금

全東龍동문 유족 1억원



지난 12월 14일 故 全東龍(수의학52-56 前동화농산 대표)동문(사친)의 유족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8천만원을 보내왔다. 지난해 9월 별세한 全東龍은 2006년에 1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2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全東龍 유족은 고인의 遺志를 받들어 나머지 금액을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李永旭동문 2천만원 출연

지난 12월 24일 동호합동법률사무소 李永旭(법학52-56)변호사가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2천만원을 출연했다.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李永旭은 1987년 오스트리아 빈 여행 중에 실종된 아들 李幸煥(영문81입)동문을 기리기 위해 공동명의로 소액이나마 건립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부동창회

동문 가족의 밤 행사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宋圭政)는 지난 12월 6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林炳元(기약78-82)·林忠珍(성약81-85)·白善雅(성약86-90)·김종화(성약91-97)·이진성(기약95-99)동문이 쇼팽의 ‘녹턴’, 푸치니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시나트라 ‘My way’ 등을 선보였다.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모교 법인화로 새로운 출발 기대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들의 도움으로 동창회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장학빌딩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이 금년에 모두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석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모교 법인화와 관련하여 “법률인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21세기는 대항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새로운 가치 창조가 앞으로 법인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모교가 학문적 가치 창조의 출발점으로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높여갈 수 있도록 2011년에는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李基俊 前총장은 건배제의를 하



林光洙회장이 李泰鎭국사편찬위원장(右)에게 감사패 전달

며 “세계 최고의 반열이라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업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인화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니 동문 모두가 모교 발전에 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李吉女부회장은 건배사에서 “모교의 발전이 있어야 국가의 발전이 있고, 국가의 발전이 있어야 세계 인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모든 동문들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朴鸞壽사무총장의 동창회 회무보고에 이어 모교 南益鉉기획처장은 모교 현황보고를 통해 “앞

으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탄생하는데, 법인화의 틀 안에서 모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 재정, 회계 등 여러 행정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 중 가진 덕담시간에는 본회 李世中·李炯均부회장, 모교 평의원회 朴彬沃의장, 李泰鎭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李世中부회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고, 李炯均부회장은 인연의 소중함과 남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朴彬沃의장은 “2011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인 만큼 동창회와 모교가 더욱더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林光洙회장이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찾는데 공헌한 李泰鎭국사편찬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林光洙회장·孫一根상임부회장·洪性大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관악회 임원,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智)

전북지부동창회

‘작은 음악회’ 열어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2월 27일 전주시 중식당 ‘백리향’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洪性大부회장을 비롯해 申鐵淳(교육행정57-61)前전북대 총장, 張明錫(정치58-64)前경향신문 사장, 金翰(기계공학74-77)전북은행장, 柳成業(외교80-84)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金亨燮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우리 교유의 가락인 국악을 주제로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전북대 음악과 申祥浩(기약74졸)교수의 ‘오페라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수의대동창회

故 全東龍동문 3억 기부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角模)는 지난 12월 23일 故 全東龍(수의학52-56)동문의 부인이 장학재단에 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인 김정열 여사는 “가족 모두는 고인이 실천해온 나눔의 정신을 받들어 고인의 뜻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南)

2011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8일 (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일 시: 2011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① 제13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5차·관악회 111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새해 새 희망을 다지며 ... 굿바이 2010년



'VISION2010' 기금으로 중국 칭화대와 북경대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許鎭奎회장(左)에게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安圭里·金 典·金有瑩동문, 徐廷瑄동문 부부, 朴容眩회장, 林鍾凝동문, 方英柱동문 부부, 柳仁鈞동문 부부

공대동창회

새 회장에 尹友錫동문 추대

공과대학동창회(회장 許鎭奎)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공대동창회 金貞植·鄭哲圭·成百詮·李基俊 고문, 許鎭奎회장, 尹友錫차기 회장, 공과대학 姜泰普학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대동창회장을 지낸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공대동창회장에 취임해 동창회 활성화에 노력해온 許鎭奎회장과 모교 발전에 진력하고 있는 姜泰普학장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姜학장은 지난 5년간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고 임기를 마친 許회

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일진그룹 회장인 許동문은 동창회장 취임 후 'VISION2010' 캠페인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추계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내정된 진성티씨 尹友錫(광산63-67)회장은 이날 동문들에게 인준을 받고 2011년부터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7면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참조> 이날 행사를 위해 金貞植(전자공학48-56)·成百詮(토목공학52-56)·李富燮(화학공학56-60)·南正鉉(건축공학57-61)·申春植(기계공학57-61)·金聖中(광산공학59-66)·金榮華(전기공학59-63)·孔炳採(금속공학62-70)·尹鍾龍(전자공학62-66)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의대동창회

徐廷瑄교수 등 함춘상 받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眩)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함춘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姜信浩·李吉女 명예회장, 미주의대동창회 鄭仁溶회장, 모교 權壽赫 명예교수, 任廷基 학장, 丁憲源병원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함춘학술상 시상식에서 의학상 부문에 美USUHS 林鍾凝(의학50-57)교수, 모교 내과학교실 方英柱(의학73-79)교수, 정신과학교실 柳仁鈞(의학82-88)교수, 동이의학상 부문에 모교 생화학교실 徐廷瑄(의학70-76)교수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의학상은 1

천만원, 동이의학상은 3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또 제7회 '張起呂의도상' 수상단체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과 해외구호활동을 펼쳐온 라파엘클리닉을 선정해 2천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모교 의대 金有瑩(의학63-69)명예교수가 라파엘클리닉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교 생리학교실 金典(의학67-73)교수, 내과학교실 安圭里(의학74-80)교수가 진료소장과 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목우회

입학 50주년 기념행사

상대 60동기회(목우회 회장 金在哲)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백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본 蔡洙康동문은 회원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국내에 2백7명의 동기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45명, 작고한 회원은 54명이라고 밝혔다.

전자동문회

尹鍾龍동문 대상 수상

전자동문회(회장 李潤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 대상 수상자로 삼성전자 尹鍾龍(전자공학62-66)고문이 선정됐으며, 모교 成宏模(전자공학65입)교수, KAIST 黃奎永(전자공학73졸)교수, 삼성종합기술원 金奇南(전자공학77-81)원장, 쉐캅 金範燮(전자공학83졸)부사장, LG전자 朴鍾碩(전자공학77-81)부사장은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보대원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4명 시상



金旻永·白道明·黃仁慶·鄭海元·金榮淑·林光洙·姜寅求동문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旻永)는 지난 12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소담마루에서 송년의 밤 행사 및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 한 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보대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安小榮(보대원75-77)급여성임이사, 모교 보건대학원 鄭海元(동물69-73)교수, 가천의과대학 金榮淑(간호70졸)교수, 경원대 黃仁慶(약학70졸)부총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申光淳·申碩鉉·姜寅求전임 회장, 金旻永회장, 모교 보대원 白道明 원장을 비롯해 1회 졸업생인 安商

璟·鄭文植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미생물학과동창회> 金尙珍회장 선출 미생물학과동창회(회장 金斗鉉)는 지난 11월 27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으로 미생물학회장을 역임한 한국해양연구원 金尙珍(미생물71-75)책임연구원을 선출했으며, 감사로 강원대 崔炯泰(미생물70-74)교수를 선임했다. <南>

제13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11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1년 3월 18일)

서울대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金權震회장, 마히팔·Ganbat·Leng Wei·김 훈·길경은(대리)장학생, 金明煥학장

SPARC동창회

장학금 1천만원 전달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權震)는 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洪起南전임 회장, 金權震회장을 비롯해 모교 자연과학대학 金明煥학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송년을 기념해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동문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모교 자연과학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3명 등 5명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송년회를 더욱 뜻깊게 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자는 다

마로니에회

‘학림다방’서 송년모임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 단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월 21일 서울 명륜동 ‘학림다방’과 중국식당 ‘진아춘’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학생시절의 추억 어린 장소에서 오랜만의 회포를 풀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정을 나눴다.

특히 朱剛秀(지질64-69)동문이 우즈베키스탄산 보드카 3병을 내놓아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濫準徹(지질64-68)동문은 하모니카를 멋지게 연주해 분위기를 북돋웠다.

동송클럽

송년회 1백여 명 참석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12월 10일 서울 방배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처음 나온 南淇鎭(사회65-70)·宋崇洛(정치65-69)·柳熙烈(지리65-69)·李注衡(국문65-69)·이용웅(미학65-69)·林 栖(미학65-73)·張炳宇(영문65-73)·河熙鳳(사학65-69)·許鼎九(영문65-69)동문을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해 2002년 동기회 창립 후 가장 많은 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음과 같다.

▲감사패：張宰鎭(산업공학80-84·2기)·安相元(산업미술82-88·5기)·李靑山(5기)·沈裁晟(12기)·金志炫(13기)·房龍洙(16기) 동문 ▲공로패：田東勳(1기)·金尙熙(5기)·金廣珍(8기)·柳賢善(8기)·朴成煥(8기)·鄭運鎬(9기)·尹錫九(10기)·金東泓(12기)·裴斗植(12기)·宋鎭奎(12기)·趙賢旭(사법83-87·12기)·崔承洙(12기)·金淸子(13기)·朴商夏(13기)·丁昌武(13기)·金光洙(14기)·金英文(15기)·鄭云基(15기) 동문

영문과동창회

발전기금 10억원 도전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도곡동 중식당 차통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柳津회장, 모

ACAD동창회

국가정책인 대상 수여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정책인 대상 수상자

물리학부동창회

金聖中회장 1억원 출연

물리학부동창회(회장 金聖中)는 지난 11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종합물류 대표인 金聖中회장(사진)은 이날 물리학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으며, 모교 물리학부 姜秉南학부장이 회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물리학부에서는 ‘金聖中장학금’을 설립해 기금 수익으로 후배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리학부동창회는 매년 등산·바둑·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교 인문대학 邊昌九학장, 영문학과 趙哲源학장, 柳斗善차기 학과장을 비롯해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 발전기금의 영문과 지정기탁금(현재 8억여원)을 연말까지 10억원으로 끌어올리자”며 “동

로 대한노인회 李 沁(32기)회장, 黃震夏(42기)국회의원, 조원F&I 張永蘭(국악75-80·63기)대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慎重大(행정65-72·38기)심사위원장은 “총 9명이 추천된 가운데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李沁회장, 군사·외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여를 해오신



申一汕회장, 金外順대표, 崔仁植전임 회장

AMPFRI동창회

경영대상에 金外順동문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서초 로얄프라자에서 송년회 및 경영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AMPFRI동창회 崔仁植·蘇宰範·韓基永·朴秉南·呂弼東·尹煥植전임 회장, 보대원동창회 金旻永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전임 원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들께서 만원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장이 충당해 연말까지 10억을 만드자”고 제언했다.

이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재학생 멘티를 대표해 권소현 학생이 멘토 선배들에 대한 감사편지 15통을 예쁜 박스에 담아 柳회장에게 전달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黃震夏의원, 모교에 거액의 기금을 쾌척한 張永蘭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 후 이어진 총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동일그룹 李弼雨(14기)회장을 선출했다.李회장은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북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에서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해 늘 참석하는데 언제나 전임 회장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는다”며 “申회장이 물려나시더라도 모든 모임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경영대상 수상자로 가보정 金外順(11기)대표를 선정해 시상했다.申一汕회장은 경품으로 본인이 제작한 숲 액자를 증정했으며, 金外順대표는 이날 즉석에서 발전기금 5백만원을 출연했다.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 명의로 수여한 특별 공로패는 朴熙熙(12기)여성회장이 받았다.

한편 모교 李承旭주임 교수는 축사를 통해 “과정 활성화와 입학생 모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현재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FB동창회

패션경영인상 4명 시상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12월 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패션경영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영인대상 수상자로 현대스포츠 김경원(8기)대표, 삼아ENG 최동기(9기)대표, 벤텍스 고경찬(10기)대표, 영신물산 조창섭(10기)대표를 선정해 시상했다. (南)

제8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8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천인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2011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2월 중순
7. 시상식：2월 정기총회
8. 문의：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공대동창회 尹友錫회장
(진성티이씨 회장)



진성티이씨 尹友錫(광산63-67)회장이 지난 12월 공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尹회장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공대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 대표를 맡아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모았으며, 2003~2005년 자원공학과동창회장으로 장학기금 구축, 사무실 확보, 행사 정례화 등 동창회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회사에서 尹회장을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尹회장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라고 했다.

－ 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許鎭奎회장께서 4년간 고생하셨는데, 또 하라고 하면 도리가 아니죠. 바통이 넘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기금 출연 계획은.

“李長茂 前총장이 고등학교 후배이면서 대학동기인데, 총장 재임 때 10억원을 출연하셨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모교에 빚진 것 돌려줘야죠”

어와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서울대 공대인으로 받은 혜택이 참 커요.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는데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돌려줘야죠.”

－ 공대동창회 규모가 꽤 크죠.

“회원이 5만명이 넘고 동문들이 모은 재산도 63억원(공대 발전기금)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학과가 분산돼 있다보니 동문간의 정은 그리 끈끈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숙제죠.”

－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인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격월로 임원들 만나고, 정례화돼 있는 우수졸업자 시상식, 정기총회, 골프대회, 송년회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정도죠. 다만 회비 모금에 신경을 쓰려고요. 은퇴한 선배님들에게는 가급적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후배, 동기들을 독려해서 동창회가 운용할

尹회장은 생각났을 때 말해야 한다며 인터뷰 중 李 前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 신고식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1943년 서울 출생인 尹회장은 경기고를 나와 재수해서 모교에 입학했다. ROTC(5기)로 군복무 후 상업은행에 입사해 5년간 근무했다. 1975년 장인으로부터 중장비 부품 업체를 인수해 진성티이씨(신생사업사)를 설립했다. 진성티이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 무한케도의 필수 부품인 롤러와 아이들러 생산업체로 2007년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1억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尹회장의 가족 가운데 동문이 많다. 큰형(尹台錫 섬유공학 48-51), 둘째형(尹甲錫 금속공학53-57), 셋째형(尹正錫 법학55-59), 넷째형(尹永錫 경제58-64)을 비롯해 며느리(趙惠衍 기약89-93)가 모두 동문이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鄭聖立회장
(대우정보시스템 회장)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동창회 3대 회장으로 대우정보시스템 鄭聖立(조선공학68-72·3기)회장이 선출됐다. AFP동창회는 회원이 2백30여 명 밖에 안되지만 친목활동과 학술교류는 그 어느 동창회 못지 않게 활발하다. 특히 기별로 학술포럼을 조직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만나는 등 학구열이 뜨거운 모임으로 정평이 나있

한 번밖에 빠지지 않았죠.”

－ 회장을 맡으셨는데.

“3기 원우회장을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됐네요. 동창회란 게 동문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요.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 함께 일할 임원은 누구신지.

“나은병원 河憲永(3기)원장께서 총무간사로 업무를 총괄하시고, SNU치과병원 石昌仁(치의학81-87·3기)원장이 학술간사로 세미나, 친목 모임을 기획합니다. 재무간사로는 에스크베리타스 李赫鎭(3기)대표가 수고해주시고요.”

－ 특별히 생각하는 일이라면.

“학구적 분위기 이어가겠다”

다. 지난 12월 21일 서울 관철동 사무실에서 만난 鄭회장은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AFP과정은 지금도 인기가 높죠.

“현재 7기가 공부 중인데 다른 최고위과정에 비해 신입생 모집이 수월하다고 해요.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지적 욕구에 목말라 있던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수업 분위기도 매우 진지하고요. 수료 후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져 모든 모임을 인문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송년회도 강의를 어우러진 음악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입학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대한 동경이 컸어요. 스스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원래 2기로 들어갔다가 회사 사정으로 수료를 못하고 다시 3기로 입학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3기로 들어가 수업을

“과정 성격을 살려 학술 모임을 좀더 많이 가지려고요. 또 기금 모금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조만간 임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1950년 서울 출생인 鄭회장은 경기고를 나와 모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한국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동해조선을 거쳐 대우중공업 전무,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했다. 2006년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대우정보시스템은 1989년 대우그룹 시절 그룹사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임직원수는 9백여 명, 주주액 기준 업계 순위는 7~8위 정도다. 鄭회장은 제 10대 조선해양공학과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부인과 사이에 미혼인 남매를 두고 있다. 형(鄭聖于 화학공학65-69)과 딸(소연 경영97-02)이 동문이다. 〈南〉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6관왕 기록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승마 마장마술 종목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휩쓸며 4연패를 달성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마장마술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이후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금메달을 한번도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으니 그야말로 대기록인 셈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록 하나. 비인기 종목이면서도 메달박스로 불리는 마장마술에서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 나왔다. 무려 총 4회의 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한 기록인데, 한화갤러리아승마단의 徐廷均(체육교육81-91)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국 ‘승마의 전설’이 되다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당시 모교에 재학 중이던 徐동문이 한국 승마 마장마술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승마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나온 메달이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徐동문은 1998년 아시안게임 2관왕(단체전, 개인전)과 2002년·2006년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보유한 선수가 됐다.

徐동문의 성적이 더욱 값진 이유는 마장마술은 한 대회에서 최대 수확할 수 있는 금메달이 단체전과 개인전 두 개뿐이라는 점이다. 徐동문은 1990년을 제외하고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총 5회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4개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않고는 절대 이를 수 없는 성과다. 더욱이 1990년 베이

징대회에는 승마 종목이 없었고, 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서는 일본의 특수검역문제로 자기말을 갖고 가지 못한 채 대여마로 경기를 치러야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역대 아시안게임 6관왕으로 徐동문과 같이 금메달 수 타이틀 기록한 양궁의 양창훈 선수가 1986년(4개)과 1990년(2개)에 금메달을 따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2006년(3개)과 2010년(3개)에 금메달을 딴 것과 비교해보면 徐동문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가 한국 승마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성격을 고쳐보려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승마를 하게 됐어요.”

이렇듯 단순한 계기로 시작했던 승마는 그의 인생은 물론, 한국 승마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승마 종목 중 장애물비월과 마장마술을 둘 다 했었다고 한다. 장애물비월은 정해진 장애물 코스에 따라 말의 비월 기술성과 속도 등을 테스트 하는 종목이고, 마장마술은 20m×60m 규모의 경기장 안에서 20여 개의 과목들을 수행하는 동안 선수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경기다. 장애물비월이 말의 도약 능력을 중시한다면 마장마술은 말의 컨트롤에 중점을 둔다.

승마 종목 중에서 특별히 마장마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장애물비월도 좋았지만 자기보다 10배나 더 무겁고 큰 동물을 컨트롤하면서 탄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점점 마장마술 분야에 전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교에 재학 중이던 1982년에는 1년간 휴학을 하고 프랑스에 있는 소뮈르 프랑스 국립승마학교로 유학을 다녀왔다. 그 이후에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세계 승마계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그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이 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승마가 대중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승마는 돈 많은 사람들만

의 전설이었던 독일선수 라이너 클림케(Riner Klimke)에게 2년 정도 사사했다.

그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과 유럽 승마 수준의 현격한 차이였다. 지금은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 승마는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최하위 그룹이었다. “수백 년 동안 전수돼 내려온 기술, 항상 말을 옆에서 볼 수 있는 문화, 말들의 수준 등 무엇하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다”고 徐동문은 말했다.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고 싶어”

그래서일까. 귀국 후 첫 메달을 따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한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서 훈련할 시간을 따로 할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으로 훈련을 나갈 때면 휴학을 해야 했다. 그래서 모교를 졸업하는데 10년이나 걸렸다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승마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현재 국내에 있는 승마 클럽은 1백60여 개로 일본의 5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프랑스의 7천5백여 개와는 비교조차 안 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게 신기할 정도다. 열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메달을 따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徐동문은

즐거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굳이 자기말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승마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徐동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승마를 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정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승마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승마 수업을 하고 있고, 동호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좀더 저렴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승마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徐동문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올림픽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다. 승마 마장마술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徐동문이 개인전 경기에서 세운 10위가 최고다. “20년이 넘도록 제가 올림픽 때 세웠던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올림픽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제가 안 되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불모지의 땅에서 금을 캐낸 그의 능력과 노력이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서도 자랑스러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智)

“정부 취업정책에 발맞춰 직업기술교육 강화”

동문을 찾아서

李周浩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李周浩(무역79-83)장관을 만난 날은 지난 12월 27일 늦은 오후였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연말을 맞아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는 그와 마주앉았다.

한국의 교육문제를 푸는 사람은 노벨상 감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국교육의 난맥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모의 뜨거운 교육 열어야말로 오늘의 한국을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신뢰

를 받고 있기보다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여기에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겪는 혼란도 크다.

동문의 인연으로 李장관을 만나는 자리라 민감한 교육문제 이슈를 꺼낼 수는 없어도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장관은 질문마다 막힘 없는 답을 꺼내놓았지만 시간이 주는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대담 : 許文明(동아일보 국제부 차장)노설위원

— 오늘자 신문에 서울대 공대 대학원이 미달이라고 해서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박사과정도 많이 강화해야죠. 할 때가 됐죠. 불합학문체제란 말이 있죠? 스스로 재생산해야 하는데 박사학위는 대부분 외국에 가서 받아오잖아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일본만 해도 국내박사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박사과정을 해외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죠. 박사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지원합니다. 박사학위 중 우수한 학생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걱정까지 덜어줄 생각입니다.”

—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통과됐는데요.

“법인화는 자율체제를 의미하죠. 서울대가 이사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서울대가 이사회가 없었잖아요. 교과부가 다 파견하고 모든 결정을 교과부를 통해서 하는 등 사실 정부 조직이었죠.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 교수를 한 명 뽑으려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죠.

“일단 서울대 교수가 되려면 공무원 신분이 돼야 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해외 유명 교수를 채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울대가 2009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47위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순위가 낮은 이유가 국제화부분 점수가 낮기 때문이었거든요. 법인화가 안 된 체제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죠.”

— 법인화가 되더라도 교과부의 재정지원

은 별도로 이뤄지는 거죠. “그럼요.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금 인상 걱정이 많은데, 금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돼 등록금 급등에 대한 기본 제어장치도 마련돼 있어요. KAIST도, 울산과기대도 법인화돼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주립대들도 다 법인화돼 있어요. 법인을 반대하는 분들이 마치 법인을 민영화처럼 착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론화 구조가 참 약하다는 것을 법인화 논쟁에서도 볼 수 있죠.

서울대 법인화는 어제오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盧武鉉정부 때도 하려고 했고, DJ정부 때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부가 하려고 하면 야당은 다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법인체제로 국립대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지방거점 국립대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큼니다.”

— 학생 정원 증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제한을 받게 돼 증원은 자율적으

“법인화 이후 서울대 지원 변함없어” 평가 좋은 교사에 ‘학습연구년’ 부여

로 할 수 없습니다.”

— 법인화 후 서울대 재산권 행사는 서울대 총장과 해당 분야 장관께서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학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주시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과부도 서울대가 법인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산부문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양도를 위한 협의시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차질 없이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장관님 블로그를 가보니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던데요. 블로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임 이래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해 왔어요. 현장, 소통, 서비스입니다. 블로그(positive-change.tistory.com) 이름이 ‘긍정의 변화’인데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진정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 요즘 언론에 비친 공교육 붕괴의 모습

• 李장관은

△1961년 경북 대구 출생 △대구 청주고 졸업 △모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노동경제학 박사) △金泳三정부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교육개혁포럼 간사·운영위원 △한국직업교육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학처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회원 △미국 콜게이트대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 등 집필

은 안쓰럽다 못해 처참할 지경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말아죠. 실제 돌아보신 교육현장은 어떤가요.

“문제가 많죠. 교육 현장은 인권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가야 하지만 인권만이 중요하냐, 그러면 교권은 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이나 학교문화 등 보다 큰 개념으로 풀어야 하죠.”

— 교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규율도 세우고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요즘 체벌금지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겪는 교사들의 애로도 큰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하지만 물리적인 체벌은 금지해야죠. 법에서도 물리적 체벌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그게 이슈라기보다는 교사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전문적인 생활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체벌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체

벌보다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죠.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체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벌 문제는 인권보다는 학교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면 답이 없잖아요. 학교문화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공동체 책임의식도 같이 불어넣어야 하죠. 학교 안에서는 학적을 준수하는 문화가 중요하죠. 학적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고, 선진국처럼 학교법정 등을 통해서 경미한 징계는 처리할 수도 있고요. 법치 교육을 실천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의 자율을 존중해주고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작용 아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상담교사를 많이 투입하는 등 정부가 많이 지원해야 하죠.”

—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 중점 과제 중 공교육 경쟁력 향상이 1번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요.

“수업을 재미있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 암기교육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교육현장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하세요. 게임을 곁들여 흥미를 유도하거나 익숙한 영화를 통해 과학 현상을 설명해 주는 등. 아직 물론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죠.”

—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교원평가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제도죠. 교원평가를 잘 받은 교사들에게 학습연구년제 등을 줄 계획입니다.”

— 교원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원평가에 관해서는 현재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010년 전면 시행을 거치면서 국민, 교원, 학부모 및 교원



“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부터 점진적 확대해야”

☑ 단체 모두가 제도 도입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봐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맞습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질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자질보다도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면 왕따당하는 문화가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교원평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교장공모,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보면 패키지요. 그동안은 학교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 장관으로 취임하신 후 첫 입시를 치르셨는데 올해 입시는 어떻게 보세요.

“입시제도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입학사정관제도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는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매년 3만5천명 정도 뽑거든요. 전체 입시 정원의 10% 수준이죠. 그 정도에서 내실화시켜서 입학사정관들이 숨은 보배들을 많이 캐내도록 해야죠.”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나 사교육 유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학들이 사실 안이한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대학도 있지만, 조금 더 잘하도록 유도해야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 서울대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더군요.

“현재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형이 65%(2천2백7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입학사정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정관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인프라를 갖춰 나간다면 머지않아 100% 선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 공교육 정상화, 입학사정관제 외에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뭔가요.

“올해는 직업기술교육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직업인으로 키우는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무조건 대학에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일류 직업인으로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에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고 전체 학교에 3천5백억원을 투입해서 전원 장학제도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진학합니다. 바로 산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 취업률이 낮았던 이유는 뭔가요.

“지난 정부에서 대학으로 가는 길을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특성화고에 가면 오히려 대학 진학이 쉽다는 말이 나오면서 실제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죠. 무

조건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위 선취업 후진학이 좋은 모델이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야간대학 등에 진학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정권 초기에 마에스터고에 집중했고, 올해는 특성화고를 키우는 작업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대학으로 보면 전문대학 살리기, 지방대학 살리기가 되겠죠. 지방대학은 지방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은 산학협력을 많이 하도록 해야죠. 특히 올해는 정부가 취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교과부도 그쪽에 보조를 맞춰갈 생각입니다.”

—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육이 정치화되고 이념화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만 국가가 인정할 노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전교조도 투쟁일변도에서 바뀔 거라고 봅니다.”

— 현장에서는 회원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학칙 준수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

현장·소통·서비스 위해 블로그 개설

“10만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6만5백명인 거 그래요.”

— 요즘 무상급식이 이슈입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일률적 무상급식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초·중학생 5백24만명 무상급식에는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무상급식에 교육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교육 환경개선 등 다른 분야의 균형발전 저해 및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학교 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부터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올해는 특히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6·25전쟁이 복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주시민의식 강화라고 해서 안보 교육, 국가정체성 교육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하고 있죠. 현안 과제로 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노동경제학을 했어요. 노동경제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가 교육경제학입니다. 노동경제학이란 게 휴먼캐피탈 이론이죠. 노동경제학 하는 분 중에 교육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죠.”

— MB정권의 교육 청사진을 그린 주인공으로 아는데.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책조정위원장을 오래하면서 한나라당 교육정책을 많이 다들었죠. 그게 MB 대선 공약이 됐고, MB정권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하면서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죠.”

— 자평을 해본다면.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 각 시·도를 돌면서 학부모 강연을 10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할 때는 사인 요청도 받았어요.”

— 강연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과외를 하지 말고 학교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고 학교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아이들이 시험에 얽매어 불필요한 암기를 자주 하게 하거나 시

험 공부에 몰입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너무 기존 교육을 비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옛날 학부모들은 학원에 다 보냈잖아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게 해야지 학원에 실어 나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요즘엔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한 번 지나가면서 학부모님들이 그 폐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님들께 정부정책이 바뀌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미래사회가 글로벌 경쟁시대고, 글로벌 경쟁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란 것이 그냥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예술적 감수성도 필요하고 체력도 있어야 하죠. 그야말로 전인교육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과거에는 전인교육이 별로 호응을 못 얻었잖아요. 과거의 교육체제는 시험에 몰입하는 체제였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1백여 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또 학교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주말에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클럽을 개최합니다. 2015년까지 아이들 반 정도는 스포츠클럽에 하나 정도는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사실 미국 입학사정관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도 입학사정관제가 완전히 정착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보지 않는데, 교육체제가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죠. 스포츠·예술이나 수업시간에 토론하고 글 쓰는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한국교육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교육 문제, 입시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든지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죠.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은 똑똑하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미국의 경우 최고 우수한 아이들이 고대, 사대에 안 가거든요. 우리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가기 때문에 자질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 자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동안 집단이기주의, 이념 문제, 정책실패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교육 문제나 입시문제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죠.”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동문 기고

저는 법조계에 입문한 이래 군법무관 3년, 관사 2년, 미국 유학 및 실무경험 5년(에일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뉴욕에서 로펌 변호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래,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하고 지난 30년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 뜻한 바 있어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하고, 저에게 허락된 남은 기간은 전체 법조계의 발전과 변호사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답고 보람 있게 마무리지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변호사 숫자는 1만1천명을 넘어섰고, 2012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매년 1천5백~2천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발간한 2010년 한국변호사백서에서 드러난 개업 5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의 평균 소득실태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취

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 선거가 2월 28일 대의원 투표로 치러진다. 그에 앞서 1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협 회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사실상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협 회장 출마 후보는 辛永茂(법학63-67)변호사와 河昌佑(법학74-78)변호사. 후변호사가 대형 로펌 대표 출신으로서 경륜을 강조한다면, 河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맡은 경험과 패기를 내세우고 있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선거에 앞서 두 동문 후보자가 보내온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다.



辛 永 茂
(법학63-67)
변호사



河 昌 佑
(법학74-78)
변호사

동문 기고

좁았습니다. 2008년 개관한 변호사교육문화관은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미래 20년을 내다본 작품입니다. 여성변호사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 어린이집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회 회무에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 된 다음날부터 혼란 없이 바로 회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은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들을 위해 몇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 이하로 내리겠습니다. 입학정원의 75% 합격률은 이미 상당수 학생이 지퇴한 지방로스쿨의 현 학생수를 감안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비율이므로 법조인의 수준을 높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청년변호사 일자리 3천개 창출”

업과 교육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입니다.

첫째, 청년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 변호사 의원보좌관제도, 경찰간부, 입법조사처 등에 변호사 채용확대,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 사내변호사 채용지원 및 지위향상, 법률보험제도 도입, 파산관재인, 재개발조합 재산관리인에 변호사강제제도 도입,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Escrow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해 보이겠습니다.

둘째, 청년변호사들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변호사·사내변호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개업변호사 입회금 분납제도를 도입해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흔들리는 변호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

겠습니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로스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로 변호사의 관·검사 진출 확대, 변협의 인사추천권을 실질화하고 입법지원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및 원로변호사를 위해 변호사 연금제도 도입, 각종 소송자료와 서식을 DB화한 전자도서관 설치 및 하급심판결문 공개, 쌍방향 온라인교육시스템 도입, 변호사의 경비인정 범위 확대, 변호사 전문 육아·가사·상조 지원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쌓은 다양한 법조경력과 30년간의 로펌 운영 및 지난 2년간의 변호사 연수원장직 경험을 토대로, 갈라진 변호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원의 단합을 이룩해 변호사업계의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에 대처하고 직역을 확대해 후배 변호사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섰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낮추겠다”

저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河昌佑변호사입니다. 출마 계기는 변호사 단체의 내부 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변호사에게 변협은 없었습니다. 로스쿨 문제, 법률시장 개방, 소송대리권 분쟁 등 수많은 난제를 뒤로한 채 집안싸움만 하더니 로스쿨 문제는 결국 대책도 세워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변호사의 생존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변협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 변호사들 편에서 소통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법관평가제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을 기획했고 2년을 연구하고 준비해 이뤄낸 일입니다. 변호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 1천명 시대에 만들어진 변호사회관은 너무

를 제공하기 위해 합격률을 반드시 50% 이하로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관 및 검사 임용시 변협의 추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변협이 법관 및 검사 임용의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변호사의 법관 및 검사 임용을 조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변호사공제제도로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연금을 납입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재야 출신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변호사들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의 발전을 위해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나

인사·운영·예산 자율…경쟁력 강화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난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모교는 체제를 개편하고 2012년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법인화의 주요 골자는 ‘자율성’이다. 모교는 지난 1995년부터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제약으로 세계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없던 점을 인식, ‘교육의 획기적 혁신과 내실화’,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법인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모교는 정부 조직이 갖는 경직성 때문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없고 인사와 조직 개편도 제약이 많았다. 실제로 모교는 국제경쟁력이 상승 추세인 다른 대학과 달리 최근 3년간 세계 대학 순위에서 47~50위에 머물러 상승폭이 낮았다.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재정 지원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장 선출은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총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또한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며 연구 능력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 법인 임용을 원치 않는 교수에게는 5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지금까지 정부·학장회의·평의원회·기성회가 중심으로 이뤄졌던 모교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이후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가 담당한다. 7~15명 규모의 이사회에는 외부 인사가 절반이상

법인화 이전	구 분	법인화 이후
교직원 투표(직선제)	총장선출	총장선출위원회·이사회를 통한 간접 선출(간선제)
공무원	교직원 신분	법인직원
국·공유지를 사용	재 산	소유권 양도받음
품목별 예산지원	국가지원	총액 예산지원으로 운영에 자율성 확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채용 어려움	외국인교수 채용	자유롭게 채용 가능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한	수익사업	학교채권 발행 및 수익사업 가능
정부·교무회의·교수회 중심 의사결정	정책결정	외부인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서울대학교 설치령·각종 법령	조직설치	대학법인 자율

포함될 예정이다. (표 참조)

이밖에 법인화가 시행되면 학사·연구·직원 인사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수익사업도 허용돼 연구 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吳然天총장은 법인의 초대 이사장을 겸하게 되며 모교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양여 된다.

吳然天총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모교는 인사·예산·조직 부문에서 자기 혁신을 이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교수 등 15명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 본회 林光洙회장, 盧信永동문, 吳然天총장, 許鎭奎동문, 具在書씨, 金鮮東동문

제3회 모교 발전공로상 시상

盧信永·金鮮東·許鎭奎동문 등 수상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12월 9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제3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단체부문에 재단법인 롯데장학재단(이사장 盧信永 법학50-54), 개인부문에 具在書씨, 미래국제재단 金鮮東(화학공학59-63)이사장, 일진그룹 許鎭奎(금속공학59-63)회장에게 발전공로상을 시상했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뜻을 영원히 기리는 자리”라며 “앞으로 모교는 오늘 수상자와 같이 모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 있는 지성인을 많이 배출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선진 국가로 올라섰고, 이제 높아진 우리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모교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金秉燮교수

지난 12월 6일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金秉燮(농경제 72-76)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김원장은 1954년 부산 출생으로 19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90년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아시아개발센터 소장,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鄭哲圭동문, 林光洙회장, 吳然天총장, 金貞植동문, 李昇鍾부총장, 姜泰晋학장

공대 ‘해동학술문화관’ 준공

대덕전자 金貞植회장 건립 지원

모교는 지난 12월 10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32동) 부근에 신축된 해동학술문화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건물은 해동과학문화재단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치의학대학원장에 崔珣哲교수 선임

지난 12월 28일 치의학대학원장에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崔珣哲(치의학 73-79)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崔원장은 모교 대학원에서 1982년 석사학위, 1988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 조교수를 거쳐 1989년 모교에 부임했다.

모교 치과대학 학생부학장, 모교 병원 치과방사선과 진료과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워싱턴대·코네티컷대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이사장이 35억원을 출연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학술연구와 기술진흥지원, 과학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된 학술문화관이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함께 이뤄 나가길 바란다”며 준공을 축하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金貞植이사장을 소개한 뒤 “이번에 준공된 건물은 세계 우수 대학과의 인적교류는 물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원

한국어 교원 양성 실시

평생교육원(원장 梁豪煥)은 지난 1월 10일부터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으로 모교 인문대와 사범대, 언어교육원 교수 30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1백4시간의 온라인 강

의와 20시간의 실습을 거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강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환경계획연구소

창립 30주년 심포지엄

환경계획연구소(소장 李秉洙)는 지난 12월 9일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에서 ‘건기의 재발견’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기’의 의미를 다양한 학문적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모교 자유전공학부 韓敬九(인류74-78)교수, 환경대학원 李道元(식물71-78)·金光中(환대원77-83)·成鍾祥(조경80-84)교수 등 10여 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패널로 참가해 주제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金光中교수는 ‘건기와 도시설계’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올레길로 상징되는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보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환경계획연구소는 도시·지역, 교통, 조경, 환경 등에 걸친 공공계획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10년 동안 각종 기업 및 정부기관과 협력해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성과를 통해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있다. (榮)



앞줄 李鶴來학생처장, 金泓鍾교무처장, 李明哲부이사장, 吳然天총장, 李淳子교수, 朴明珍부총장, 李昇鍾부총장, 金炯周상임이사

‘金在益장학기금’ 협약식 부인 李淳子동문 20억원 쾌척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12월 29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金在益장학기금’으로 20억원을 쾌척한 숙명여대 李淳子 명예교수를 초청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吳然天총장, 朴明珍교육부총장, 李昇鍾연구부총장을 비롯해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金炯周상임이사, 李淳子 명예교수의 가족 및 지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故 金在益(외교56-60)동문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지내던 1983년 북한의 미안과 아웅산 폭탄테러로 순직한 인물로, 부인 李淳子(불문57-61)동문이 평소 모든 나라가 빈곤을 탈출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이번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이번 ‘金在益장학기금’은 모교에서 선진경제 정책을 공부하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유학생들과 젊은 관료들을 위해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李동문은 남편과 함께 포드재단 장학금을 통해 어렵게 배움에 대한 열망을 채우던 과거 학창시절

을 회상하며 “선진국의 원조와 도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불우한 나라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뒤 “소박한 장학기금이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과 그들 나라에 희망찬 미래의 약속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술관·웅대원·사회대

게임 미디어 아트 전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융합과 학기술대학원(원장 崔陽熙)·사회과학대학 정보문화융합전공과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관악캠퍼스 미술관 전시실에서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게임에 대한 인문학적 본질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Interactive Media Art 작품과의 정신적·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주는 순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 전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2부 순서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4〉

교보생명 愼昌宰회장 의대 발전기금 16억원 출연 강의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난 12월 20일 교보생명 愼昌宰(의학72-78 본회 부회장)회장(사진)이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16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출연은 愼회장의 선친인 愼鏞虎회장이 25년전 10억원을 모교 의대 기초의학진흥기금으로 기부한데 이어 대를 이은 기부로 화제가 되고 있다.



愼회장이 출연한 발전기금은 모교 의대 재학생 장학기금과 의대 통합강의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로 매년 8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80년 된 통합강의실의 좁은 계단을 넓히고 낡은 책걸상도 교체하는 등 학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愼회장은 1953년 경상남도 거창출생으로 1989년에서 1996년까지 모교 의대 산부인과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모교 의대 출신으로 병원 진료 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경의지회(경계를 넘나드는 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200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객만족대상 최고경영자상’, 2004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한국CEO상’, 대통령 표창, 2008년 전경련 국제경영원 ‘IMI 경영대상(사회공헌부문)’, 2010년 ‘제19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경영자상’ 등이 있다.

TM마린 金大旭대표

후배사랑 발전기금 5억원 출연



吳然天총장, 金大旭대표

최근 TM마린 金大旭(조선공학 76-80)대표가 모교 발전기금에 5억원을 쾌척했다.

이번에 설립된 ‘金大旭장학기금’

은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재학생 중 학문 성취가 우수한 학생에게 줄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金대표는 기금 출연식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공부하는 후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하면 좋겠다”며 “이번 장학기금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대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을 거쳐 현재 유럽산 선박기자재를 국내 조선소에 판매하는 에이전트인 TM마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덴마크 왕실이 수여하는 영예의 메달과 덴마크 수출협회 표창장을 수상했다.

의대 朴鍾完교수팀

간암성장 억제물질 ‘케토신’ 발견

지난 12월 19일 모교 약리학교실 朴鍾完(의학80-86)교수(사진)연구팀이 흙 곰팡이 유래 항생물질 ‘케토신’이 간암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간암을 이식시킨 생쥐에 케토신을 투여한 결과, 간암성장이 억제됐는데, 케토신이 암조직의 히프원 단백질과 혈관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케토신이 정상세포에는 반응하지 않고 간암 세포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밝혀내 차세대 항암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부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간 관련 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됐다.

그동안 국내 5대 암 중 하나인 간암 치료에는 방사선, 항암요법,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됐지만, 환자의 수명을 눈에 띄게 연장시키거나 완치하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했다. 〈榮〉



朴明珍교육부총장이 외국인 교수들에게 한국식 건배인사를 제의했다.

국제협력본부

외국인 교수·가족 초청 송년파티

국제협력본부(본부장 金俊基)는 지난 12월 9일 관악캠퍼스 CJ인터내셔널센터에서 외국인 교수와 가족을 위한 송년 파티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朴明珍교육부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내 외국인 교수와 가족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파티는 국제협력본부가 그동안 넓은 캠퍼스에서 마주할 수 없었던 외국인 교수들이 연말 송년회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다양한 국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吳然天총장은 인사말에서 “국적은 달라도 여러분은 모두 서울대

가족이고 한 식구”라며 “법인화를 앞두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朴明珍교육부총장은 만찬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글로벌 하모니’를 외치며 한국식 건배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흥을 북돋웠다.

컴퓨터공학부 로버트 이안 매케이 교수는 “2005년 처음 서울대에 왔을 때는 외롭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내의 취업문제도 잘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생각보다 더 잘 풀려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모교에는 2백명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교수들이 인재양성과 학문발전, 모교의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학생의 소리



논쟁·토론 살아있는 총학생회

이전 두 번의 총학생회 선거 무산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동문 분들께서도 이번 총학생회 선거를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지켜봐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벅찬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53대 서울대총학생회 회장 知倫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소실된 자치와 토론의 문화를 복원하고,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총학생회의 이름에 걸맞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언제보다도 진지한 삶의 자세로, 고민으로 1년간 총학생회를 기본부터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토에 대해 수많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수년간 고민하시며 지금도 그러한 과제를 안고 여러 방면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서울대의 이러한 묵직한 모토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됐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 시기이든 사회와 몸을 부딪히며 살아왔던 서울대학교, 그리고 총학생회에서 담보해야 할 진리는 당연히게도 사회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 다시금 학문은 무엇이며, 서울대학교 발전의 실모습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진리’라는 기준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1분 만에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교수님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의 논의나 고민 없이 날치기통과를 자행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수님의 우려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이라면,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

李 知 倫(인류07입)
제53대 총학생회장

들의 삶에 빛을 던져주는 대학이 돼야 합니다. 모호한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장밋빛 전망이 아닌 진지한 고민이 튀워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 동문 선배들께서 함께 법인화안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논쟁을 튀워낼 수 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대학원장상을 수상한 유귀미 동문이 임원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미술대학

졸업작품전 개최

미술대학(학장 章洙弘)은 지난 12월 3~12일 관악캠퍼스 미술관과 미술대학에서 ‘2010학년도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3일 오프닝 기념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그리고 모교에서는 吳然天총장, 朴明珍부총장을 비롯해 미대 章洙弘학장 및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했다.

章洙弘학장의 인사말과 吳然天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졸업전의 주인공들은 졸업과 함께 모교의 동문이자 동창회원이 된다”며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려 깊고 헌신적인 사회인

이 돼 더 큰 곳에서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1백71명의 학사, 석·박사 학생들이 조각 및 회화 작품을 출품했으며, 디자인학부 공예과는 졸업전시 기간에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바자회를 열어 작품을 판매했다.

졸업전시회는 미술대학 학부졸업 대상자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실력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에게는 창작지원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총장상 : 이아련 (디자인학부 07입) ▲대학원장상 : 유귀미(동양화04-08) ▲학장상 : 고상현(조소07입) ▲故 河東哲창작지원상 : 박신영(서양화07입) 〈榮〉

콩트 릴레이

꽃게 아가의 연평도 외출

이 주 애(본명 李貞愛)
(대학원87-89)동화작가



꽃게 아가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다 그만 잠에서 깨었어요. 엄마는 요즘들어 아가의 꿈에 자주 나타나 손질을 했어요. 육지로 오라는 소리인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오래전에 육지로 나가서서 아직껏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가는 몇 번이고 엄마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갯벌집을 떠나기가 왠지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엄마를 찾아 나서리라고 아가는 굳게 결심했어요. 살금살금 가웃가웃 기어 갔어요. 좌우압뒤를 잘 살피며 육지로 올라왔어요. 찬란한 햇살이 참으로 눈이 부서

했어요.

이때 또 다시 ‘우르릉 광광!’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대포소리 같기도 한 굵은 소음이 귀가 찢어지듯이 울렸어요. 매운 연기가 가득차고, 건물이 흔들리고, 짐체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보은병이 새까만 탄피처럼 나뒹굴고, 수십 발의 포성이 장대비처럼 쏟아졌어요. 평화로운 섬이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엄마는 왜 하필 이때 날 오라 하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만나야 하리란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시골벽적 큰소리가 들렸어요.

“

육지는 無腸公子인 너희 꽃게들의

붉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야.

한 핏줄의 인간들끼리도

정답게 살기 쉽지 않아

티격태격 난리잖니?

엄마는 육지에 없으니

얼른 갯벌집으로 돌아가려무나.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요. 까만 갯벌에만 있다가 하얀 육지로 나오니 현기증이 났어요. 그래도 엄마를 찾아야지 하는 생각에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하얀 굴뚝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반짝였어요. 여기저기 나뒹구는 돌멩이조차 아가를 반기는 듯 재갈겨려요. 모든 게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엄마가 꿈속에서 자주 오라고 손짓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환하고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엄마가 고마워 아가의 마음은 들썩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꽁’ 하는 굉음이 울렸어요. 눈이 멀 것 같은 빛과 연기가 목을 숙인 자라처럼 아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지나 살그머니 눈을 떠 봤어요. 또다시 ‘펑펑! 풍풍!’ 하는 소리가 지옥을 왔다갔다하게 했어요. 마음속에 격정 한 조각, 근심 두 조각, 불안 세 조각이 차례차례 마음땀을 쏟았어요. 갯벌집과는 참 다른 세상이 좀 무섭기는 했지만 한편으론 궁금도 했어요.

‘무슨 일이 난 걸까? 그냥 갯벌집으로 돌아갈까?’

순간 망설였지만 엄마를 만나야 하리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불안의 탑쌓기를 그 만들 수 있게 해 줬어요. 어쨌든 견디기로

“아이고 할매! 포격연습인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이라요. 얼른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매, 어쩐다냐? 우리 보람이 재워두고 나왔는데. 시상에, 이를 어찌? 에미도 없는 것을 내가 데리고 있다가 황천길로 먼저 보내는 것 아냐? 보람아,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는 손녀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까만 포연 속을 뚫고 보람이가 자고 있는 집을 향하여 바빠바빠 걸음을 옮기셨어요.

“지금은 한미연합포격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선제공격했습니다. 연평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인천 부두로 향하는 연락선에 승선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는 급박한 음성이 마을 전체에 큰 비상이 걸렸음을 알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빠르게 먼지를 흠날리며 움직였어요.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6·25전쟁 이후 이 섬에 살면서 가장 무섭고도 끔찍한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천안함 사태로 백령도를 놀래키더니, 이제는 연평도를 포격해? 하여간 김정일 그 놈을…”

아저씨들은 툭툭거리며 양팔로 커다란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선창가로 향합니다.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을 업거나 걸리며 종종걸음으로 따라잡니다.

“가긴 어딜간다는 거야? 한 발짝도 걷기 힘든데, 이래저래 죽을 목숨! 난 잔뼈가 굵은 내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니께, 갈테면 할망구나 가드라고.”

허리가 꼬부라져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해소 섞인 쉼 목소리로 할머니를 향해 외치십니다.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이게 뭐랑가? 젠장! 창고에 꽃게도 다 썩어 불텐데…; 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부두가에서 배를 손질하다 만 보람 아빠도 툭툭거리며 집을 향해 허겁지겁 돌아가다가 보람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어무이, 보람이는 어찌고 혼자 계신다요?”

“에고 애비야, 보람이 자갈래 새참 준비하러 잠깐 나왔다가 그만… 싸게싸게 가보그라. 보람이가 제발 무시하야 할텐데…”

보람 아빠는 낯간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월레벌떡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람아, 보람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가의 마음도 조마

새어나왔어요.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꿈마다 나타났던 엄마가 지난밤에 안 오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자주 손짓한 것은 육지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갯벌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빨리 오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나….’

아가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행동을 후회했어요. 예지력 뛰어나기로 소문난 엄마가 가장 무서운 시간에 아가를 육지로 불러냈을리는 만무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아가는 어찌해야 좋을지 아득하기만 했어요. 사람들 틈에 끼여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갯벌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 잘 분간할 수 없었어요.

아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두 눈을 꼭 감았어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는 눈을 꼭 감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고…; 마음 깊이에서 엄마의 목소리같이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엄연한 음성이 아가에게 들렸어요.

“아가야, 세상은 아주 넓고 복잡하단다. 너의 갯벌집과는 사뭇 다르게 변화가 무쌍한 곳이지. 언뜻 보기엔 하얀 평화가 흐르는 화려한 곳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검은 전쟁으로 얼룩진 칙칙한 곳이지. 너는 엄마를 찾아 육지로 가고 싶겠지만 육지는 무장공자인 너희 꽃게들의 붉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야. 한 핏줄의 인간들끼리도 정답게 살기 쉽지 않아 티격태격 난리잖니? 엄마는 육지에 없으니 얼른 갯벌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네 엄마는 오직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곳이란단다.”

엄마가 육지에 없다는 말에, 엄마를 꿈속에서만 만나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 아가는 화들짝 눈을 떠봤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는 엄마를 직접 만나기 위해 공포의 시간을 뚫고 예까지 왔는데 엄마를 못보고 다시 갯벌집으로 돌아가야 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쏙 빠지고 머리가 아찔했어요. 등딱지를 망치로 팡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단 한번만이라도…;

그러나 엄마는 오직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침을 꿀꺽 삼킨 아가는 발걸음이 분주한 사람들 틈을 뚫고 빠져나와 엄마와의 만남이 가능한 갯벌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땀어요.

문득 보람이가 궁금해졌어요. 아가는 보람이 할머니와 아빠가 가신 방향으로 잔걸음을 돌렸어요. 고양이와 허물어진 거리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어요. 햄스터가 짹짹거리며 갈갈질갈 해내고 있어요. 삼삼 강아지는 우두커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들 엄마를 잃어버린 듯 슬퍼보여요.

이때 양정맞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다가와 슬픔을 일깨웠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엄마 만나려면 급하게 피난가야 하는 거야? 배타고 나가면 엄마가 기다린대? 보람이 동생도 함께 만나는 거야? 아이 좋아! 빨리 가자. 할머니!”

아가 곁을 스치며 종알대는 보람이는 가볍게 상기된 얼굴로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는 할머니를 재촉했어요.

꽃게 아가는 보람이가 엄마를 꼭 만날 수 있길 다시금 기원하며 푸른 꿈이 있는 갯벌집을 향해 사각사각 걸었어요.

조마했어요. 세상에도 자기처럼 엄마와 헤어져 사는 아이가 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가는 보람이를 보진 못했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 간절한 기도의 탑을 쌓았어요. 자비 한 조각, 안전 두 조각, 사랑 세 조각…;

포성은 잇달아 들렸어요. 졸지어 날던 바닷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까룩까룩 울었어요.

“아주머니들, 빨리빨리 연락선 안 타고 뭐하세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는 아줌마들을 거들어 군인 아저씨들이 짐을 들고 함께 선창가로 향했어요.

유리창이 또다시 흔들리더니 쟁그랑 깨졌어요. “아악!” 사람들의 외마디 비명소리도 들렸어요. 또다시 포성이 주변을 에워쌌어요. 여기저기서 카메라의 플래시가 찰칵 찰칵 터졌어요. 차들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상 처난 짐승처럼 길게 누워있어요. 주인 잃은 개들이 왕왕거리며 하늘을 향해 경경 경경 짖었어요.

‘아아! 이를 어찌냐?’

굴바위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가는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탄식이

동 정

수 상

▲具本術(의학50졸 한국실명예방 재단 명예회장) = 지난 12월 9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의료봉사상 수상.

▲徐世鈺(회화46-50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8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미술인상 특별상 수상.

▲權純亨(응용미술49-55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 지난 12월 8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미술인상(공예부문) 수상.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4일 한국지역문화학회로부터 3회 梅泉 黃政문 학상 대상 수상.

▲南惠祐(대학원56졸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 지난 12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21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

문상 수상.
▲閔庚甲(회화53-57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지난 12월 8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미술인상(회화부문) 수상.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15일 한국폴브라이트 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白秉東(작곡55-61 모교 작곡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15일 대원문화재단으로부터 대원음악상 작곡상 수상.

▲金東虎(행정56-61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 지난 12월 3일 세계패션그룹한국협회로부터 패션그룹상 수상.

▲李赫相(의학56-62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 지난 12월 4일 서울 백병원 인당관에서 제5회 聖山 張起呂賞 수상.

▲張世一(전기공학59-63 일성 회장·관악회 이사)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崔承熙(국사59-63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관 문화훈장 수훈.

▲李鍾祥(회화59-63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 지난 12월 8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미술인상(회화부문) 수상.

▲權丙鉉(행정63졸 한·중문화청소년미래센터 대표) = 지난 12월 15일 희망제작소와 대한생명으로부터 해외시니어 어워즈(희

망씨앗상) 수상.
▲玄鴻柱(법학59-63 前주미 대사) = 지난 12월 9일 한국컬럼비아대동창회 총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컬럼비아인상 수상.

▲金理那(국사60-64 홍익대 명예교수) = 지난 1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유산상(학술연구부문) 수상.

▲朴壽文(화학60-64 울산과학기술대 석좌교수) = 지난 12월 8일 미국 텍사스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李炳勳(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 = 지난 11월 24일 한국사이버국제발명전재대회에서 금상과 말레이시아·타이완 특허

청장의 최우수발명상 수상. 또 12월 2~5일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러시아 교육과학부 장관상 및 금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 및 은상 수상.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너지산업부문) 수상.

▲吳 明(전자공학64-66 웅진에너지·폴리실리콘 회장) = 지난 12월 14일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파라과이정부로부터 '코멘다도르 훈장' 수훈.

▲金基炳(행정67졸 롯데관광개발 회장·행대원 동창회장) = 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윤리경영부문) 수상.

▲李元泰(농경제64-68 대한통운 사장)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물류혁신부문) 수상. 또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소비자만족부문) 수상.

▲李廷勳(법학64-68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윤리경영부문) 수상.

▲李錫采(경영64-68 KT 회장) = 최근 환경비즈니스가 선정하는 '2010 올해의 CEO'에서 대상(비제조업부문) 수상.

▲李建鎭(작곡65-7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지난 12월 10일 제59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서양음악부문) 수상.

▲白聖基(금속공학67-71 포스텍 총장)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교육발전부문) 수상.

▲鄭範植(화학공학67-71 호남석유화학 사장)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李廷厚(지질67-71 전북대 교수)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여하는 '2010 대한민국 과학문화상'(문화창달부문) 수상.

▲孟廷柱(경제67-71 前서울시 강남구청장) = 지난 12월 6일 제4회 대한민국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 수상.

▲李水彰(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 = 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제20회 다산금융상(생명보험부문) 금상 수상.

▲李鍾徹(의학67-73 삼성의료원장)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의료서비스부문) 수상.

▲姜錫重(금속공학69-73 KAIST 교수) = 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9회 한국공학상(기계·금속·재료분야) 수상.

▲金磐石(화학공학69-76 LG화학 부회장) = 최근 환경비즈니스가 선정하는 '2010 올해의 CEO'에서 종합대상 수상.

▲呂革鐘(기계공학69-73 STX에너지 부회장)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본보 논설위원)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방송언론부문) 수상.

▲朴鍾圭(응용미술69-73 폴리곤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 지난 11월 26일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19회 경기도 문학상(소설부문) 수상.

▲金智英(식품영양69-73 경희대 교수) = 지난 12월 1일 한국연구재단과 동아사이언스로부터 제10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진흥부문) 수상.

▲朱南哲(대학원69-77 고려대 명예교수) = 지난 12월 10일 제59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문화재부문) 수상.

▲金文洙(경영70-94 경기도지사) = 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최고대상) 수상.

▲鄭俊陽(공업교육75졸 포스코 회장) = 지난 12월 7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2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수상.

▲崔志成(무역71-77 삼성전자 부회장) = 최근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하는 '2010 올해의 CEO'에서 대상(제조업부문) 수상.

▲任赫伯(정치71-75 고려대 교수) = 지난 12월 4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저서 '新遊牧의 민주주의'로 학술상 수상.

▲智昌薰(교육71-77 대한항공 총괄사장) = 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지향서비스부

문) 수상.
▲朴泰鎬(경제71-75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金柄烈(공업화학72-79 GS칼텍스 부사장)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 수훈.

▲李在弘(전자공학72-76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 = 지난 12월 1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회 해동학술상 수상.

▲姜仁求(화학공학73-77 이수화학 사장)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업훈장 수훈.

▲全炳日(공업교육77졸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姜昌律(제약73-77 모교 제약학과 교수) =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부터 제5회 생명의 신비상(생명과학부문) 수상.

▲李南植(농화학74-78 전주대 총장)=지난 12월 6일 캄보디아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 훈장 수훈.



▲金京會(사회교육74-78 성신여대 교수)=지난 12월 6일 제4회 대한민국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 수상.



▲姜聲源(금속공학75-79 LS니코동제련 대표)=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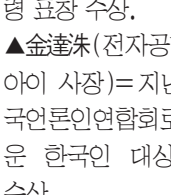
▲白昌基(경영76-80 동양자산운용 대표)=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제20회 다산금융상(투신부문) 금상 수상.



▲張永喆(경영76-80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지향서비스부문) 수상.



▲金相建(제약78-82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2월 15일 2010년 보건산업기술유공 시상식에서 신약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金達洙(전자공학79-83 티엘아이 사장)=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정보기술부문) 수상.

▲余禎星(가정관리83졸 모교 소비자자동차부 교수)=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 주최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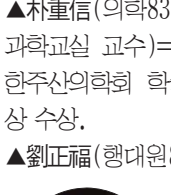
▲金惠正(독문82-86 듀오정보사장)=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감동경영부문) 수상.



▲金敏均(농화학82-86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12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0 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수상.



▲朴重信(의학83-89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최근 제23차 대한주산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수상.



▲劉正福(형대원86-88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지난 12월 9일 한·유럽연합 산업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세계화상 수상.



▲高貞愛(제약87-91 중앙일보기자)=지난 12월 17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韓元湜(의학88-94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2일 다국적 제약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수여하는 'GSK 국제인종

연구대상' 수상.

▲河承烈(수학91-9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4회 젊은과학자상(자연과학분야) 수상.



▲전중환(생물92-96 경희대 교수)=지난 12월 8일 미국 텍사스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鄭載玟(법학96-01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지난 12월 23일 저서 '소설 이사부'로 포항국제동해문학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1회 포항국제동해문학상 수상.



▲金勝猷(AMP 19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최근 환경비즈니스가 선정하는 '2010 올해의 CEO'에서 대상(금융업부문) 수상.



▲李章漢(AMP 37기 증권당비오 회장)=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崔英主(AMP 37기 팬코 회장)=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裴昌煥(AMP 39기 창성 대표)=지난 12월 9일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朴鍾元(AMP 48기 코리안리 사장)=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제20회 다산금융상(손해보험부문) 금상 수상.



▲洪性烈(AMP 50기 마리오 회장)=지난 12월 15일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崔漢英(AMP 56기 현대자동차 부회장)=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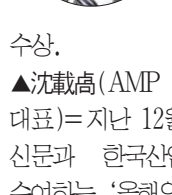
▲金允燮(AMP 59기 유한양행 사장)=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사회책임경영부문) 수상.



▲金正泰(AMP 59기 하나은행장)=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제20회 다산금융상(시중은행부문) 금상 수상.



▲韓二洙(AMP 59기 금호리조트 사장)=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수상.



▲沈載高(AMP 68기 LS엠트론 대표)=지난 12월 15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테크노 CEO상

(대기업부문)' 수상.

▲鄭喜鎔(AIP 27기 청석엔지니어링 회장)=지난 12월 9일 고려대경제인회가 수여하는 경제인대상(소유경영인부문) 수상.



▲申容賢(AIP 38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12월 1일 한국연구재단과 동아사이언스로부터 제10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공학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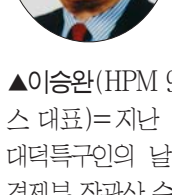
▲任漢享(AIP 39기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사장)=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 수훈.



▲李承漢(SGS 11기 홈플러스그룹 회장)=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경영혁신부문) 수상.



▲朴尙東(HPM 2기 동서한방병원장)=최근 청원고(옛 동대문상고) 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런 청원동문상 수상.



▲이승완(HPM 9기 서울프로폴리스 대표)=지난 12월 15일 '2010 대덕특구인의 날'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朴仁植(AIC 27기 SK브로드밴드 사장)=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감동경영부문) 수상.



▲徐綜郁(ACPMP 3기 대우건설 사 장·ACPMP 동창회장)= 지난 12월 9일 고려대경제인회가 수여하는 경제인 대상 (전문경영

인부문) 수상.

▲任基永(GLP 1기 대우증권 사 장)= 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 사회에서 제20 회 다산금융상 (증권부문) 금상 수상.

▲趙啓隆(GLP 11기 한국무역보 험공사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 탐 산업훈장 수훈.

▲蘇鎭世(ALP 12기 코리아세븐 대표)= 지난 12 월 21일 중앙 SUNDAY 로 부 터 소비자 권익 증진 경영대상 (소비자만족부

문) 수상.

▲崔炳烈(AFP 3기 신세계 이마 트부문 대표)= 지난 12월 21일 중앙SUNDAY로 부터 소비자 권 익증진 경영대상 (소비자만족부

문) 수상.

인 사

▲鄭鍾旭(외교59-65 前주중 대 사·모교 국제대 학원 초빙교수) =최근 미국 하 버드대에 신설된 ‘金九초빙 교수’ 에 위촉.

▲金容圭(행정66졸 前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 주네덜란드 대 사)= 지난 12월 10일 한국외교 협회 제19대 회 장에 선임.

▲朴榮敏(체육교육62-66 고려대 명예교수·전국 골프연합회장) =지난 12월 2 일 YTN이 위촉 한 전국명문골프 장 심사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선정.

▲韓竣皓(임학64-68·법학68-72 삼천리 부회 장)= 지난 12 월 14일 도시 가스업체 삼천 리 대표이사 회 장에 선임.

▲鄭雲燦(경제66-70 前국무총 리·前 모교 총 장)= 지난 12월 13일 대·중소기 업 동반성장을 총괄하는 동반성 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

▲崔炳模(법학67-71 법무법인 양 재 변호사)= 지난 12월 21일 서울 시교육청 법률고문에 위촉.

▲金鍾寅(건축68-76 대림산업 사 장·한국공학한 립원 회원)=지 난 12월 16일 대림산업 대표 이사 부회장에 선임.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스스 회장)= 지난 12 월 7일 서울사 대 부교동창회 정 기 총 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취임.

▲金道然(재료공학70-74 前교육 과학기술부 장 관·울산대 총 장)= 지난 12월 16일 한국공학 한림원 회장에 선임.

▲嚴基永(사회70-74 前MBC 사 장·본보 논설위 원)= 지난 12월 10일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 유 치 지원 민간단 체협의회장에 취 임. 또 22일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趙宰說(경영70-74 애경그룹 ARD홀딩스 사장)= 지난 12월 19일 애경그룹 전략기획실장에 선임.

▲李基秀(대학원70-72 고려대 총 장)= 지난 12월 21일 임기 2년 의 한·일법학회 제4대 회장에 선출.

▲金秉燮(농경제72-76 모교 행정 대학원장)= 지 난 12월 11일 임기 1년의 한 국행정학회 제 46대 회장에 취임.

▲朴贊郁(정치72-76 모교 정치학 과 교수)= 지난 12월 4일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에서 열린 한국정치 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金錫東(경영73-78 前재정경제 부 제1차관·前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지난 12 월 31일 금융위 원장에 내정.

▲李鍾榮(체육교육73-77 한국체 대 교수)= 지난 12월 1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 에서 한국체육학회 제22대 회장에 취임.

▲許京旭(경영74-78 경제협력개 발기구 한국대 표부 대사)=지 난 12월 16일 임기 3년의 OECD 연금기금 관리위원회 의장

에 선임.

▲崔重卿(경영75-79 前주필리핀 대사·청와대 경 제수석비서관) =지난 12월 31 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

▲金英蘭(법학75-79 前대법원 대 법관·서강대 석좌교수)= 지난 12월 31일 국민 권익위원장에 내 정.

▲吳守根(법학75-79 이화여대 교 수)= 지난 12월 13일 유엔국제 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그룹 의장에 선출.

▲李東官(정치76-81 前홍보수석 비서관·본보 논 설위원)= 지난 12월 31일 청와 대 언론특별보좌 관에 임명.

▲鄭陝鎭(정치77-82 한국일보 수 석논설위원)= 지난 12월 22일 중견 언론인 모 임인 관훈클럽 제58대 총무에 선출.

▲金鎭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 설위원·본보 논 설위원)= 지난 12월 21일 중앙 일보 논설위원실 장에 취임.

▲黃仁子(대학원78-82 영산대 겸 임교수)= 지난 12월 3일 한·중 청소년연맹 창립 비전 선포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취임.

▲金東洙(행대원80-83 前기획재 정부 제1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장·ASP동창회 장)= 지난 12월 31일 공정거래 위원장에 내정.

▲金容範(경제81-85 G20정상회 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국장)= 지 난 12월 22일 금융위원회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

▲金映宣(공법81-85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지난 12월 9일 아시아 금융경 제 국제위원회의 (APFEC) 초 대 공동의장에 선출.

▲高潤煥(행대원84-86 행정안전 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 지난 12 월 8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 임명.

▲吳東浩(행대원85-88 행정안전 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지난 12 월 8일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 임명.

▲李鍾宇(ACAD 63기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차장)= 지난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

▲安光瓚(ACAD 46기 前국가비상기획위원장)=지난 12월 31일 청와대 초대 국가위기관리실장에 임명.



▲安鎬元(HPM 6기 부전대 객원교수)=지난 11월 18일 경희대 언론대학원동문회 제7대 회장에 선출.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12월 14일 가천의과대학 宋錫球총장과 2012년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姜慶植(법학55-61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지난 12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김영사刊) 출판기념회 개최.



▲梁性喆(정치58-64 前주미 대사·고려대 석좌교수)=최근 미국 캔터키대동창회 '2010년 UK Hall of Distinguished Alumni'에 선정. 또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50년 50인 이야기'의 한 사람으로 선정.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12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2월 28일 수원 세전수사에서 수원에 총 5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李泰東(건축64-68 피비코리아 부사장)=최근 현존하는 9백여 개 서원을 답사한 결과물 '서원승람'(민속원刊) 출간.



▲朴相哲(의학67-73 모교 생화학 교실 교수)=지난 12월 21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노화혁명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지난 12월 6~7일 대만 정치대학 법학원이 주최한 '노동계약법의 전망과 미래' 주제의 국제포럼에서 한국대표로 주제발표.



▲金錫俊(토목공학6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지난 11월 18~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0 서울 과학기술포럼' 개최.



▲朴思明(법학71-75 강원대 교수·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지난 12월 17일 서울 삼정호텔에

서 '동남아시아 최근 선거의 정치동학'이란 주제로 아세안포럼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최근 '미디어융합시대의 이용자 권익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출간. 또 충북 음성 매곡교에서 미디어인권교육. MBC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교육.



▲李俊揆(법학72-76 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12월 15일 '중국의 부상과 한·중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중국 연구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관악회 이사)=지난 11월 27일 서울청소녀수련관에서 파인트리클럽 창립 52주년 축하 행사 개최.



▲李國賢(의학75-81 모교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오는 2월 18~1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한겨울 심포지엄 개최.



▲朴錫淳(동물76-80 이화여대 교수·부국환경포럼 대표)=지난 12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기자회견장에서 '저탄소 녹색성



장'의 새로운 추진력, 스마트성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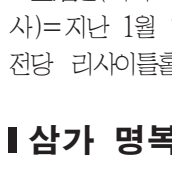
▲南秀雅(기악88-92 경원대 겸임교수·첼리스트)=지난 12월 6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파가니니, 드보르자크, 피아졸라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박재연(기악94-98 조선대 교수)=지난 12월 17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姬廷(기악96-00 숙명여대 강사)=지난 1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멘델스존,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鎮敦(HPM 4기 윤제당한의원장·송파문인협회장)=지난 12월 3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송파구 새마을문고 백일장 시상식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



▲趙俊來(AMPFRI 12기 비트플렉스 회장)=지난 12월 6일 경인TV(OBS) 경제스페셜 '실패는 없다'에 창조경영의 대표경영자로 방영.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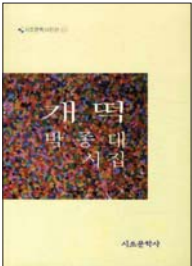
- ▲馬景錫(화학공학45-48 호마기술 회장)=12월 17일 별세(87세)
- ▲韓荃淑(철학45-49 모교 명예교수)=12월 19일 별세(82세)
- ▲李允中(약학46-49 성균관대 명예교수)=12월 17일 별세(84세)
- ▲全遇舜(정치47-52 前대한항공 이사)=12월 10일 별세(90세)
- ▲金達聲(작곡48-51 前단국대 교수)=12월 5일 별세(89세)
- ▲池應業(화학공학52졸 前동양미래대학 학장)=12월 29일 별세(84세)
- ▲李文得(화학공학48-53 모교 명예교수)=12월 8일 별세(87세)
- ▲金奉旭(법학48-56 前국회의원)=12월 2일 별세(81세)
- ▲鄭大永(경제51-55 前한주통상 고문)=12월 10일 별세(79세)
- ▲金敬俊(독문56-62)=12월 3일 별세(74세)
- ▲柳鳴夏(임학61-66 前풍강산업 대표)=12월 10일 별세(69세)
- ▲趙憲發(법학68-72 변호사)=12월 13일 별세(62세)
- ▲延洋熙(화학73-77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12월 14일 별세(61세)
- ▲蔡熙權(화학교육76-80 모교 화학교육과 교수)=12월 6일 별세(52세)
- ▲梁在奉(AMP 1기 대신증권 명예회장)=12월 9일 별세(85세)
- ▲閔銀鎬(AMP 64기 前포스코건설 부사장)=12월 21일 별세(60세)
- ▲白璠基(ACAD 17기 前국회의원)=12월 11일 별세(78세)
- ▲崔善榮(ACAD 46기 前국회의원)=12월 28일 별세(7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개떡
－ 朴鍾大 지음



한 국시 조 문학상 수상 시조시인 朴鍾大(국어교육51-56) 동문의 세 번째 시집. 2010년 올해의 시조문학작품상 수상작 ‘늑음의 강’을 포함해 33편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시적 대상에서 느끼는 사상과 감정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집으로 가락과 형식은 물론, 내면에 숨어 있는 의미 또한 전통적인 형식과 율격에 익숙한 이들에게 충격을 가한다. 크게 3장으로 구성해 성실히 시적 지향을 모색하며 늘 새로움을 추구해온 시인의 작품을 나눠 담았다. 〈시조문학사刊·값9,000원〉

■ 北韓江
－ 朴升漢 지음



춘천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朴升漢(지리교육53-57) 동문이 1991년에 화갑기념으로 펴낸 문집 ‘北韓江’의 증보판을 출간했다.

총 6장으로 나눠 농촌농민운동, 자유사회운동, 어문교육, 강대국의 속성, 해외견문, 감명 깊은 서신과 제자의 글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 소개한 제2차 세계대전 비화, 러시아 민족과 역사, 일본 군국주의의 배경과 침략, 미국 자본주의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멸망 등이 눈길을 끈다. 〈도서출판 태원刊·비매품〉

■ 노래하는 시집 슈베르트
－ 郭明圭 옮김



트리플라인 郭明圭(사회64-68) 사장이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백조의 노래’ 등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을 전부 ‘우리말로 노래부를 수 있도록’ 성악가용으로 번역한 노래말 시집.

이 책은 연가곡 애호가들이 음반을 듣거나 연주회에서 원어(독어)로 연주를 들을 때 이 번역 노래말을 눈으로 읽으며 동시통역으로 노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특히 우리말로 바꿔 노래할 때 원어에 비해 음악적 감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래말의 표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번역했다. 〈금사과刊·값10,000원〉

■ 아메리카의 한인들
－ 羅哲三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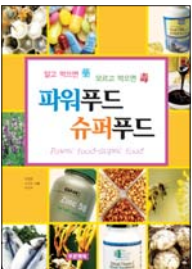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회보 주필을 지낸 羅哲三(종교64-69 코리안라이프 편집인 겸 발행인) 동문이 ‘아메리카의 한인들’ 초기이민편을 출간했다.

제1부 ‘증언’편에는 1977년 동아방송 기자시절 취재해 방송한 ‘아메리카 이민 80년’을 정리했으며, 제2부 ‘분석’편에는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은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게재했다.

제3부 ‘자료’편에는 민초들의 생활을 담은 자료를 담았으며, 제4부 ‘그들의 이야기’편은 신동아 등의 잡지에 하와이 이민을 소재로 소개된 논픽션으로 엮었다. 〈코리안라이프刊·비매품〉

■ 파워푸드 슈퍼푸드
－ 朴明潤 공저



한국보건영양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 사장이 한국농수산대학 李建順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朴宣柱(대학원98-00)책임연구원과 함께 영양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웰빙 식품으로 53가지를 선별해 각 식품별 효용성을 기술한 생활건강서.

이 책은 제1장 영양과 식품, 제2장 웰빙 식품, 제3장 비타민, 제4장 무기질, 제5장 웰빙 식생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올바르게 섭취함은 물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과 무기질의 생리적 기능, 결핍증과 과잉증, 권장량 및 급원 식품에 관해 기술했다. 〈푸른행복刊·값22,000원〉

■ 미래와 세상
－ 李永鐸 지음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낸 세계미래포럼 李永鐸(상학65-69)이사장이 미래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12가지로 정리해 분석, 전망한 책.

공 연

■ 클랑트리오 정기연주회
－ 1월 20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조소연(기악94-98)동문, 첼리스트 신수정(기악95-99)동문, 바이올리니스트 조유리(기악96-00)동문이 1월 20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랑트리오 정기



제를 12가지로 정리해 분석, 전망한 책.

미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와 최신 이론, 미래학의 예측방법 그리고 주요 용어를 정리한 미래용어사전을 수록했다. 네티즌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개인권력의 부상에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G2시대, 인구변화와 평균수명증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인공지능, 로봇, 인터넷, 교육과 일자리, 기업과 경영, 라이프 스타일, 미래인의 행복까지 총체적으로 담아냈다.

미래에 대한 커다란 그림에서부터 시작해 개인에 이르기까지 점점 좁혀가며 현재의 과학 기술과 사회문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그에 대비해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고찰해 본다. 〈미래를소유한사람들刊·값15,000원〉

■ 아프니까 청춘이다
－ 金蘭都 지음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金蘭都(사법82-86)교수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비롯해 총 42편의 격려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소개한다.

네이버와 싸이월드를 통해 청춘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멘토링을 던져왔던 金교수는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멘토이기도 하다. 金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글을 전한다. 또 때로는 차가운 지성의 언어로 청춘들이 미처

연주회를 연다. 〈사진〉 모교 출신으로 독일에서 수학한 멤버로 구성된 클랑트리오는 2006년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청평계절학교 초청연주, 대한민국 작곡제전 초청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카메라타 디 솔리스티 연주회
－ 1월 29일 고양아람누리

바수니스트 金亨燦(기악91-95)동문,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기악98-02)동문 등으로 구성된 카메라타 디 솔리스티(Camerata di Solisti)가 1월 29일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일깨워 아무리 독한 슬픔과 슬럼프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한다.

이 책은 젊은 청춘들이 눈앞에 이익이 아닌 멀리 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총 4부를 통해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조언을 전한다.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적을 이루는 삶. 金교수는 막연한 희망 메시지 대신 청춘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던진다. 〈 쌤앤파커스刊·값14,000원〉

■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 方珉昊 지음



‘창작과 비평’을 통해 비평 활동을 시작한 모교 국어국문학과 方珉昊(국문84-89)교수가 운율과 어조를 중심으로 펼쳐낸 첫 시집.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순수, 영원, 사랑의 열망을 느끼는 ‘나의 수심가’를 비롯해 65편의 시를 크게 4부로 나눠 담았다. 사랑의 감정을 시작으로 영화나 여행지 등에서 받은 영감, 내면 깊이 숨겨진 이야기,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시까지 자아와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시들을 소개한다. 〈심전문학사刊·값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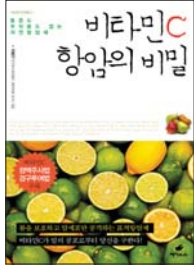
■ 비타민C 항암의 비밀
－ 河炳根 지음

비타민C와 자연의학 연구의 권위자인 인디아나대 河炳根(의학84-90)교수가 비타민C의 경이로운 항암효과와 인체보호에 관한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클래식이 즐거워지는 앙상블’을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이니스앙상블 연주회
－ 1월 30일 고양아람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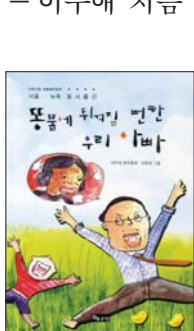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이태정(기악93-97)·채경애(기악95-99)동문, 피아니스트 임남희(기악95-99)동문, 첼리스트 李賢庭(기악96-00)동문 등으로 구성된 이니스(IGNIS)앙상블이 1월 30일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음악을 그리는 여행’을 주제로 열정이 듬뿍 담긴 하모니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진실을 들려준다.

암투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타민C 투여 임상실험에서 보여준 놀라운 결과를 이 책 속에 그대로 담아내고, 이를 통해 비타민C가 항암치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책의 내용을 통해 항암치료의 과정을 그대로 알 수 있으며 일반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치료 과정을 쉽게 풀어 썼다. 그리고 인간을 지탱하는 필수 물질인 비타민C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관련된 편견을 풀어주고 비타민C의 진실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폐가수스刊·값13,500원〉

■ 똥물에 튀겨질 뻔한 우리 아빠
－ 이주애 지음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동화작가 이주애(본명 李正愛 대학원87-89)동문의 창작동화집.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를 찾아 조명하고 그것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의 동화 11편이 실려있다.

표제작 ‘똥물에 튀겨질 뻔한 우리 아빠’는 전통적인 비속어(똥물에 튀길 놈 같으니라고...)에 얹힌 일화를 바탕으로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손자의 3대에 걸친 어린시절을 비교해 보임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동심의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도서출판 좋은땅刊·값8,000원〉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까지 약정하거나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은 본보 9월호(제390호) 별지와 12월호(제393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12월 21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보존될 명판의 제작기간을 고려해 2011년 1월 말까지 모금을 마감하여 납입된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며, 약정을 하신 분들은 최종 완납 확인 의사를 동창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1억 이상 (금액별) ②5천만원 이상 ③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1백만원 미만 등으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 (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정인조(약대51)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권육현(공대62)
△김용길(약대64졸)
△김형기(사대72)
△박인성(GLP20)
△이경수(약대66)
△이석목(약대66)
△이세영(약대57)
△이영욱(법대52)
·이재환(인문대81)
△정지석(약대60)
△추재욱(의대57)
△황호남(공대67)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고현석(법대61)
△김동규(공대58)
△김영일(약대61)
△김종수(인문대76)
△김형락(APC3)
△신명철(농대63)
△이규대(AIP36)
·이임상(사대53)
△이종오(치대76)
△이해익(상대64)
·김영희(미대65)
△임상원(문리대58)
△전금자(보대원72)
△정광호(미대60)
△하준환(공대51)
△홍경태(공대76)
·홍가영(음대05)
◆1백만원 미만

△강규영(농대68)
△강상규(문리대69)
△강영선(공대50)
△강창홍(의대67)
△계동휘(치대61)
△고애자(사대58)
△곽 환(사대73)
△곽상준(약대55)
△곽선섭(공대61)
△권문웅(미대64)
△권봉순(사대55)
△권영국(상대60)
△권영대(공대69)
△권태진(사대58졸)
△기도석(공대67)
△김광수(공대76졸)
△김광현(미대57)
△김기훈(상대52)
△김난기(사대63)

△김남우(자연대03)
△김명승(상대65)
△김문경(약대61)
△김문언(공대66)
△김봉희(공대69)
△김상만(법대52)
△김상준(상대57)
△김성준(의대61졸)
△김세중(공대50)
△김승호(공대71)
△김영덕(공대53)
△김영룡(치대55)
△김영만(상대59)
△김영식(공대67)
△김원영(미대81)
△김익성(상대53)
△김인형(미대59)
△김정빈(약대54)
△김정희(간호대69)

△김종율(사대51)
△김중석(문리대55)
△김창수(약대64)
△김태양(사대61)
△김태일(공대68)
△김해정(문리대56)
△김현화(간호대59)
△나찬국(의대58)
△남궁원(사대84)
△노용면(의대49)
△민준기(공대65졸)
△박건이(공대60)
△박대규(사대55)
△박상원(음대69)
△박수안(의대59)
△박영건(공대57)
△박익수(사대52)
△박일순(상대59)
△박풍영(공대55)
△박희병(치대70졸)
△방석운(의대53)
△백낙환(약대56)
△서정웅(약대63)
△성기로(약대57)
△손경택(농대56)
△손규성(사대61)
△손병우(문리대59)
△손영철(공대68)

△송경희(사대59)
△송영순(사대60)
△송웅길(신대원69)
△송학린(법대59)
△신영주(의대94)
△신응남(농대70)
△신정윤(공대60)
△신정택(약대52)
△양세관(경대원67졸)
△양순우(법대67)
△우병국(농대75)
△우상영(상대55)
△우한호(문리대70졸)
△원문자(사대63)
△유무영(공대66)
△유재섭(공대65)
△윤병하(농대80)
△윤석진(인문대88)
△윤영섭(의대57)
△윤정옥(약대50)
△이경태(공대63)
△이국진(사대51)
△이규용(경성제대35)
△이규홍(상대68)
△이능석(의대57)
△이대영(문리대64)
△이문휘(문리대54)
△이미령(미대79)
△이봉열(미대57)
△이상복(의대56)
△이성기(간호대72)
△이성길(치대60)
△이성훈(사회대90)
△이수호(보대원69)
△이영훈(문리대64)
△이용재(공대56)
△이유찬(의대58)
△이정갑(미대55)
△이정덕(문리대55)
△이재진(의대65졸)
△이중춘(공대56)

△이홍빈(의대57)
△이희자(간호대70)
△임석태(법대48)
△임호순(공대52)
△장동만(문리대55)
△장병문(약대전문46)
△장희선(음대87)
△전병삼(약대54)
△정도현(공대57)
△정영희(사대62)
△정인식(상대58)
△정진우(의대66)
△정택수(문리대46)
△정해민(법대55)
△조달훈(사대66)
△조상호(의대93)
△조성상(사회대73)
△조환환(치대65)
△주민숙(미대64)
△주재양(공대51)
△진봉일(공대50)
△최 호(문리대61)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소화(법대59)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대67)
△최일단(미대56)
△최준희(의대58)
△최철용(농대57)
△최학주(공대60)
△최한선(공대56)
△최한용(농대58)
△한경수(문리대57)
△한태진(의대58)
△홍성표(공대58)
△홍종만(공대64)
△황관일(법대59)
(201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출연 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0년 11·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0. 11. 19~12. 20)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勤煥= 50만원
△부회장 崔斗衡=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郭永驤= 1백만원
△부회장 安秉勳= 1백만원
△부회장 卞柱仙= 1백만원
△부회장 朴容旼=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50만원
△부회장 辛鉉雄= 50만원
△부회장 金鍾燮= 1백만원
△부회장 愼昌宰= 1백만원
△감 사 朴英俊=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金炯周= 30만원

상임이사

△洪龍濤 상대동창회장= 20만원
△洪鍾禮 차대동창회장= 20만원
△咸鍾漢 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金旻永 보대원동창회장= 20만원
△金基炳 행대원동창회장= 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 20만원
△鄭鍾守 AMPP동창회장= 20만원
△嚴玉鳳 ANM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중구 경영82
△강준근 AMP53 △고완섭 ACAD64
△김선진 사대77 △김성진 상대69
△김순영 ACPM3 △김종민 의대68
△김준봉 行院79 △김찬기 사대76
△김현철 의대78 △박선원 공대66
△박성호 공대76 △박주원 농대72
△박한제 문리69 △성기문 법대71
△송국현 공대74 △송제일 의대73
△유 영 문리66 △윤종민 인문79
△윤찬호 수의69 △이우신 농대75
△이재봉 공대78 △이재욱 공대61
△이정대 AMP66 △임근희 공대74
△정두용 SGS8 △정진욱 의대79
△주한길 법대83 △천의영 공대81
△최길선 공대65 △하상철 SPAR15
△현구택 공대83 △홍기호 AIP40
△황창윤 사회72

(일반) △가문일 법대92
△강석원 인문93 △고인숙 인문72
△고현석 법대69 △공예순 AIP43
△곽동호 법대65 △구근희 경영01
△구문일 공대63 △구혜영 사회02
△권상혁 공대08 △권성수 경영79
△권혁수 AMP69 △김규동 약대08
△김기동 공대70 △김남호 의대74

△김도형 치대00 △김동연 공대68
△김매경 사회86 △김선현 법대58
△김성수 법대84 △김순철 인문75
△김영철 AMP35 △김용선 SGS25
△김우주 경영98 △김원규 사대75
△김정년 상대51 △김정섭 음대06
△김정수 사회71 △김지수 자연07
△김진수 법대73 △김태우 치대94
△남춘우 ACPM4 △박동백 사대56
△박민선 의대85 △박영동 법대88
△박우윤 의대78 △박윤경 사대89
△박종욱 공대06 △박진원 경영00
△배미정 인문03 △변호영 치대82
△서대수 경영86 △성본섭 사대60
△손승룡 공대70 △송재경 大院89
△신동훈 의대87 △신호웅 敎院71
△양병학 문리62 △양정균 자연92
△우종균 법대81 △우종원 농대66
△유석성 AFP1 △윤종관 공대73
△이 심 ACAD32 △이가영 사회91
△이기동 공대50 △이기우 사회73
△이기학 인문83 △이미자 사대58
△이병식 상대57 △이보라 의대07
△이상열 음대84 △이석조 법대67
△이수연 인문83 △이웅상 사대73
△이재수 ALP8 △이재원 의대78
△이정대 공대65 △이정희 사대60
△이종석 법대86 △이지선 생활84
△이진원 사대72 △이태실 의대50
△이혜숙 농대85 △이호중 농대03
△임 청 의대88 △장인길 공대73
△전호승 의대81 △정신순 공대59
△정영은 법대90 △정훈직 공대00
△조상우 법대92 △조영호 의대91
△조윤신 음대91 △조한경 인문03
△주영훈 법대59 △지대영 약대88
△진조자 농대65 △차종호 인문03
△최 윤 의대04 △최덕인 문리55
△최동민 치대00 △한수연 의대92
△허재녕 약대01 △황종영 AIP39
△황창엽 공대79

이 사

◆인문대 △김학래74 △나성린72
△박승준74 △신언훈74 △유 식79
△정제문72 △정제문72 △한봉희77
◆사회대 △김동선76 △김용표81
△남기섭76 △류성록82 △방창식83
△손광락74 △이동관76 △이동훈74
△이원섭69 △장환빈73 △정보규72
△정해영72 △조영일77 △차명진79
△황정욱85
◆자연대 △김철호74 △신현철78
△양병룡74 △이덕희77 △이명재83
△이종섭73 △진 민78 △최진우75
△최진혁71 △한용택75
◆간호대 △김장언79 △윤영희75
◆경영대 △권기출72 △변재진72
△성락현76 △장영철76

◆공대 △강영훈72 △곽병현67
△곽정석50 △구창용60 △권수웅57
△권용수81 △김남호70 △김대식78
△김명린61 △김성도75 △김순형53
△김인선65 △김재수77 △김종필70
△김주홍47 △김태업68 △김호수63
△김환정71 △남장수64 △마상덕69
△문영기69 △문정석65 △문창환75
△민경식67 △박성현64 △박재룡68
△박홍춘71 △부준홍74 △부창렬77
△서정만64 △손창규79 △손태원72
△신동식72 △신상호76 △신철영70
△심재원66 △안사은57 △안용수73
△양기정67 △오동희78 △오정일64
△윤경원92 △윤경훈71 △윤석열73
△이 선59 △이남순72 △이대성89
△이순병68 △이용경60 △이원세71
△이창복56 △이흥구75 △임석철76
△임재열82 △장세창65 △장익용54
△장학순46 △전형식66 △전희상70
△정귀출73 △정금영77 △정석규48
△정성민61 △정태현73 △정형수59
△조국연69 △조형제51 △지성균71
△최영명69 △최완철69 △최정혜86
△최형남66 △홍광표54 △황규승64
△황성호84 △황인석68
◆농대 △곽유신82 △곽지상52
△김광호61 △김남훈58 △김석한89
△김윤경70 △김창성81 △김풍진71
△나찬희73 △박선현71 △서광섭79
△서완수58 △성수일66 △손해일67
△심용섭70 △양상홍62 △오박철61
△원종영62 △유부열66 △유장열68
△윤경섭65 △이규재50 △이우신75
△이재기53 △이종영70 △임열재64
△장규섭61 △장석호67 △장용문67
△장창주53 △조국광75 △최라현61
△최승호83 △최영규65 △최영대65
△최주섭67 △홍동선56
◆문리대 △강신성65 △구봉희62
△권민웅62 △권월순65 △김 승61
△김동선57 △김진동58 △김하진58
△문희수60 △민경덕59 △박정석55
△박성훈69 △방석기62 △배길훈65
△손재국65 △신준희57 △안경률67
△안병균67 △안소연65 △윤호미61
△이동화59 △이시종67 △이연희51
△이영훈64 △이정운54 △이철배59
△정만조65 △정석관66 △정연하61
△정영윤60 △정용두53 △조용철64
△최중무68 △하우봉71 △홍두표55
△홍성훈55 △황경호54 △황인광63
△황정식52
◆미대 △권순형49 △김종선74
△신현장65 △오은주83 △윤명로56
△이동영76 △정종해67
◆법대 △강용식58 △고흥달68
△권동렬59 △김나복75 △김민교89
△김성수68 △김승호62 △김영갑74
△김정보67 △김종구59 △김종성67

△김종철56 △김준규75 △김진환67
△김창섭68 △김창희82 △김하남49
△노병수83 △박상근60 △박상일77
△박용수68 △박희문73 △백대현54
△서명수75 △서창희82 △성낙인69
△송창현69 △안상수64 △안영도65
△안종택73 △양영준72 △오세빈68
△오세희58 △유 훈49 △유재선63
△유정호62 △유종걸64 △유화선59
△윤성태61 △윤종현73 △윤호일61
△이건행81 △이광택68 △이기영61
△이성로64 △이성범70 △이성웅61
△이영주58 △이우근67 △이인재73
△이재근82 △이진배65 △장상익72
△정대철62 △정해운57 △조남욱53
△조문부55 △조용준79 △조정규68
△최병모67 △최병호83 △최정현75
△한경구61 △한광수65 △함영업57
△홍성무73
◆사대 △곽후섭52 △김상현81
△김성열75 △김승재71 △목창수66
△문영식73 △민경진71 △민무일65
△박남기50 △박병익74 △성기훈71
△오지연87 △이경복69 △이오봉61
△이재성72 △이종완72 △이해익72
△이호준60 △장 호66 △장종택55
△정강주69 △최운식63 △최태상53
◆상대 △권태인46 △김근대65
△김동식61 △김중수66 △김창달53
△김태경70 △김하두64 △김효석68
△박병준51 △박성석61 △백정기71
△송국현56 △신정도61 △심재엽63
△안재천56 △윤석현67 △윤종현44
△이계문70 △이남수62 △이흥주60
△임종홍59 △장병구64 △장종의58
△전종환51 △최기동70 △황 훈68
◆생활대 △조혜옥59 △천경희78
◆수외대 △김경환80 △김오섭66
△남기용74 △박영수68 △박용호74
△신 심67 △신현일57 △윤찬호69
△이성모78 △이수창61 △이충범65
△임영철74 △장광호75 △정원공50
◆약대 △김기술71 △김동춘55
△김태근71 △남승국70 △백성기59
△원용환78 △윤효선53 △이강현75
△이병진80 △이세영57 △이주형67
△정연진69 △조균행74
◆음대 △김순화70 △이병욱68
△이한돈65
◆의대 △강세철49 △곽영호88
△김근우61 △김기락68 △김예원68
△김한수84 △박정범63 △손근찬52
△송영주74 △유명철61 △윤택구51
△이갑순55 △이광우76 △이명철67
△이원로56 △이응수66 △장경만80
△정 민75 △정경인94 △정경태53
△주권량76 △최인호70 △하정훈79
△한홍무56 △홍재웅60
◆치대 △권오양74 △김관식69
△김상철73 △김천식71 △남승우63

△박상근66 △박순억66 △박우찬68
△박종만60 △박창자62 △변석두63
△서영수67 △안병모66 △유재석70
△윤학영62 △이상재75 △이석행58
△임채균53 △장상현59 △장은식89
△정영한72 △조달문68 △최양근81
◆대학원 △김승호83 △김흥렬81
△박동준83 △박성호95 △박용수81
△정기화71 △정문기81 △조대우79
△지충수71 △하두봉56
◆경대원 △김민수70 △김선대72
◆교대원 △송향섭64
◆보대원 △권혁한75 △김덕성71
△김윤신72 △김종오79 △박희서77
◆신대원 △유일연72
◆행대원 △곽대훈78 △권영규80
△김영화68 △박병련82 △박우순76
△서동훈73 △오형국85
◆환대원 △정병한69
◆AMP △강말길35 △강춘근53
△권기술9 △김건중38 △김태환54
△김현수45 △노태식64 △이주현45
△전용택81
◆AIP △김덕표36 △김석겸36
△김영식33 △박장식27 △송기은19
△양희준16 △위재근27 △이명호20
△이충언14 △임종환15 △전영하28
△정창현20 △주영현12
◆ACAD △곽기영54 △김연수16
△신은우56 △장세환56 △전경애47
△주영순54 △한행수44 △황강주48
◆ABP △정시택23
◆SGS △남궁근16 △이용일3
△정해순15
◆APC △이완하9
◆HPM △김경태10 △박상동2
△신덕남4 △성치용4 △윤종필16
△최종기6
◆AMPP △권영택8 △염재구6
◆AIC △김영체4 △류진국1
△박경숙8 △이경의5 △이정재2
◆AFB △강복순2 △김영철1
△김종복1 △문제민4 △정덕교7
◆AMPFRI △김갑주3 △김경호15
△여필동1 △황해경20
◆ACPMP △김순영3 △함천우3
◆GLP △강창석14 △남재술9
△신태성4 △양재길5 △전기세4
△하정순14
◆ALP △백정기6 △조강언6
◆SPARC △박부순13 △이석기11
△이중우8 △조호영11 △하상철15
◆AFP △유철준2
(지면 관계로 일반 연회비 납부
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11 월 계 : 60,824,500원
평생회비 : 42,800,000원
입 회 비 : 810,000원
총 계 : 1,241,465,150원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일금 10만원) △김봉규 AMP20
△김성중 공대59 △김영근 SGS6
△전수신 상대63 △조규대 공대55
△주병덕 行院79 △홍순목 공대01
(11월 11일~12월 21일 협찬자)